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자구촌에 편만하게 되도록 우리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3)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58호 2011년 11월 5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전후세대 미래는 복음에 달려있다!

월드, 아프간 10년 전쟁 끝 미군철수준비...미래 전망 보고

지난 10월 7일로 아프간 전쟁이 발발 10주년을 맞았다. 막대한 희생을 치른 미국은 아프간에서 발을 빼려 하지만 테러 조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전쟁을 끝맺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미국은 개전 한 달 만에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올해 초에는 알카에다 지도자 빈 라덴의 사살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테러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해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몇 년간 아프간 전쟁이 진정되거나 승자와 패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지구촌 군사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1조2천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비용을 치렀고, 1천600명이 넘는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승리 없는 전쟁에 대한 악화된 여론 속에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까지 미군 철수를 결정했지만, 아프간 치안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탈레반이 최근까지 미군 헬기를 격추하고 미 대사관을 공격하는 등 테러를 멈추지 않고 있고 알카에다 잔존 세력의 기세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으로 무장한 구호 단체나 선교 단체들만이 25세 미만이 아프간 전 인구의 60%가 되는 소위 아프간 전후 세대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고 있다.

월드지는 아프간 현지에서 폭력과 갈등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후 세대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크리스천들의 사역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다(Their Future is Now: Exit strategy may be the hottest topic in town, but young Afghans are developing their staying power. What happens to the post-war generation? After they destined to know only violence and conflict?).

전쟁터에서 사역하는 기독단체들로 인해 젊은 전후세대들이 복음에 긍정적이라는 희망을 보이고 있다

세계가 입을 모아 '명분 없는 전쟁', '승자도 목표도 없는 실패한 전쟁'이라고 평가하는 아프간 전쟁. 지금 세계는 한 목소리로 불의한 아프간 전쟁을 멈추라고 외치고 있다. 지난 10년간 1,800여 명의 젊은 군인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걸 지켜본 파병국가의 국민들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고, 네덜란드에서는 잘못된 파병을 이유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따라서 미, 영, 불, 독,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파병국들도 앞다퉈 철군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의 주요 피해자는 다름 아닌 아프간 국민들이다.

아프간 아이들 4명 중 1명은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 그나마 살아남은 아이들도 용병이 되거나, 부자에게 팔려가거나, 난민이 되고 만다. 아프간에는 30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70%다. 거의 모든 중장년 남성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짊어질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아프간 청년실업률은 통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최악이고, 400만 명의 아프간 청년들은 학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글자와 숫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탈레반 전사가 되거나, 아프간 군인 또는 경찰이 돼 전쟁에 뛰어드는 길밖에 없다. 결국 10년간의 아프간 전쟁은 아프간 전후 세대에게 폭력과 갈등만을 배태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생존을 위해서는 전사가 돼야한다는 지긋지긋한 숙명이 이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 국민들의 예상 평균수명은 45세이고, 오직 28%의 인구만이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게다가 국가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아프간 평균 연령이 18세이고,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60%가 되는 소위 "아프간 전쟁세대"는 생존인가? 아니면 희망인가? 를 날마다 살면서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

지긋지긋한 전쟁을 치루면서 이들은 생존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세대이다. 이들은 놀랍게도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그토록 적대시했던 언어 즉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안정된 직장과 전문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 또한 이들 역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지구촌에서 돌아가는 문화 현상들과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의 대부분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난 세대이다.

전쟁이라는 참담한 현실에서 희망의 무지개를 붙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도전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다.

첫째는 인터넷 시설과 첨단 테크놀로지들이 구비되고 아프간 국민의 정체성이 보장되는 마을들이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2면으로 계속〉

'아랍의 봄' 되레 '반크리스천' 분위기 심화!

크리스천포스트, 뉴트 깅그리치의 중동권 종교자유위축 분석 보도

지난해 말부터 봇물처럼 터진 '아랍의 봄'은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사망까지 모두 3명의 독재자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랍의 봄`이 첫 꽃망울을 터뜨린 것은 지난해 12월18일 튀니지에서였다. 경찰의 부패와 폭행에 항의, 길거리 행상을 하던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분신자살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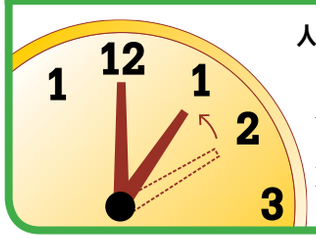
이들은 수십년 간의 독재와 절대 왕정, 인권침해, 정부 부정부패, 경제정책 실패, 높은 실업률, 빈부격차 등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높은 청년 실업률에 높은 식품가격으로 인한 기근이 심해지자 청년들이 시위를 주도했다. 독재정부 타도의 요구는 튀니지 국경을 곧장 넘어 알제리, 요르단, 이집트, 예멘 등 아랍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로 퍼졌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스라엘에도 상륙해 청년들의 시위가 이어질 정도였다. 아랍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물결은 `아랍의 봄`이라는 명칭뿐 아니라, `아랍의 봄과 겨울`, `아랍의 각성`, `아랍 봉기`등으로 불려지며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진행형이기에 '아랍의 봄'은 오히려 중동권에 반 크리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은 지구촌에서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진정한 강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한 미 차기 공화당 대선주자인 전 하원의장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 후보로부터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다.

즉 크리스천 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깅그리치 후보의 분석을 토대로 '아랍의 봄'이후, 차기 정권의 성향에 따라 오히려 민주화는 진행될지 몰라도 그 이면에 소수 세력인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동 현지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Gingrich Says "Arab Spring' is really 'Anti-Christian' Spring).

〈16면으로 계속〉

11월 6일부터 서머타임 해제



시계 오전 2시에서 1시로 돌려야

11월 첫 주일인 6일 밤을 기해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오전 2시가 오전 1시가 된다, 토요일인 11월 5일 잠들기 전에 시계바늘을 한 시간 뒤로 당기면 된다.

2면
"리더는 하나님이 세워... 순종이 최선"

7면
종교다원주의 연구 (11)
조진모 목사(합동신학교 교수)

8면
시편은혜나누기
김상덕 목사(복음장로교회)

16면
인터뷰
김성천 목사(여수제일교회 담임)

성 명 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37회 정기총회가 2011년 10월 24일 오전 10시 뉴욕신광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통탄할 믿을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안으로 경찰들이 들어와 목사와 성도들을 감시하고 발언을 막는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37회기 정기총회에서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성스러운 예배당에 총회 전에 경찰들이 후보 4명을 불러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훈시하고, 예배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지켜 서 있으면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목사들을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회의진행시 사회자는 아무리 긴급동의를 신청해도 무시한채 일방적이며 편파적으로 경찰의 힘을 의지하여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2. 감사보고 전에 순서에도 없는 증경회장이 편파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긴급토의 및 회원 발언권을 제한하고 편파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3. 감사도중에 현임원인 총무에게 감사에 관한 발언을 허용했으며, 회원발언 긴급동의 제의를 위해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하려 할 때 마이크 철수 및 전원을 꺼버렸습니다.(신광교회 방송부원과 협력) 결국 경찰들을 동원하여 감사 발표를 방해했으며, 끝내 감사의 싸인이 없었으므로 37회 총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4. 또한 교협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세칙 제 11조 1항에서 후보의 자격은 " 본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체납이 없어야 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키기 위해 회비를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단과 선관위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법규위원장의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회장당선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밝혀 드립니다.

제 37기 회장단과 집행부 및 선관위의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총회에서의 불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기에 뉴욕교계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를 철저히 막고, 사이비 이단을 철저히 배격하고 종교 통합을 지향하는 WCC를 반대하며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에 입각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수처럼 흐르는 교계를 만들기 위하여 위와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칭 "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의 결성을 공포합니다.

2011년 10 월 25 일

(가칭) 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 설립추진위원회 김명옥목사 외 101명 일동

시 론

감사의 계절
(Season of Thanksgiving)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올해도 벌써 입동(立冬)을 한 주간 남겨놓은 가을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서머타임(Summer Time)이 해제되어 밤이 일찍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2011년도 열 달이 지나고 11월의 감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년 초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소원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살아오면서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보다는 수많은 시간을 간구로 보낸 듯합니다. 매일의 신앙생활에서도 손을 내밀어 나누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움켜쥐려고 했던 욕심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것보다는 가시적인 것에 집착했던 어리석음도 기억합니다.

11월에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을 떠올리며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영어로는 'Thanksgiving' 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감사를 주는, 나누는 계절입니다. 감사를 나누는 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을 재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까지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삶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이제까지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며 놓치고 살았던,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 주위의 환경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교훈 가운데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골난망' (刻骨難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은혜를 뼛속 깊이 새기어 잊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가하면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도리어 해코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기의 상황에 따라 배은망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기당착의 악습이 있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망증으로 그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않 될 것입니다. 남편의 도움, 아내의 도움,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를 나누십시오.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큰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며 격려했던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속에 곁에 두신 주위의 지체들에게 감사와 함께 사랑을 전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올해의 Thanksgiving을 Giving Thanks로 만들어 가십시오. 큰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놀라운 감사의 계절에 온갖 감사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세워...순종이 최선"

리더십저널, 존 비비어의 "관계를 위한 묵상" 소개

직장, 가정, 교회 등 삶의 여러 환경에서 우리는 항상 리더를 만나게 된다. 때로는 리더가 중심을 잡아주고 분위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랄 때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리더의 자질이 의심돼서 관계를 끊고 싶을 때도 있다. 특히, 자신을 무시하거나 해롭게 하는 리더를 만나는 경우에는 배신감이 크게 된다. 인정받고 싶었던 리더에게서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기분은 정말 불쾌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도자들이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양육하며 돌봐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리더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존 비비어는 "관계를 위한 묵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준다:

준비되지 않은 리더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
리더에게 받은 상처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것

1. 준비되지 않은 리더로 인해서 자책감이 든다.

리더 중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리더도 있고 진짜로 악한 의도를 가진 리더들도 있다. 어떤 리더들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야망의 수단으로 이용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리더의 태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능력이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리더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리더의 태도 때문에 자책감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 경우 자책감을 가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자책감을 가지거나 분노하기보다는 리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리더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셨다. 다음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시기 바란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엡 6:5).

2. 리더에게 마음 문을 닫고 싶다.

때로는 리더의 언행이 이해가 안 돼서 반발하고 도전하고 싶은 욕구에 휩싸이기도 한다. 리더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지시와 방침 때문에 곤경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사회 지도자나 정치가들에게 배반감을 느끼며 분노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은 리더에 대한 분노가 쌓이면 그에게 다가가 솔직한 마음을 전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로 분노하고 그 분노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할 필요는 없다.

이 세상의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으로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올바른 지도와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리더에게 대항하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리더가 인도하는 방향에 순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보여주실 것이다.

3.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하나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나와 삶의 가치나 목표가 맞지 않는 리더에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평생 섬겨야 하나?'

다행이도 그렇지 않다. 가정의 리더인 부모는 성장해 독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그 밖의 사회 조직에서 만난 리더도 분쟁이나 혼란 없이 자연스러운 때를 만들어서 다른 리더를 만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리더가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이므로, 그에게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을 믿고 인내하면서 리더에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리더나 탁월한 리더 양쪽 모두를 사용해서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결론으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함께하면서 섬겨야 할 리더를 만나게 된다. 이 리더와 성격과 비전이 맞는 경우라면 정말 축복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으로 견디기 힘겹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 일의 추진방향 등을 따르기란 쉽지 않다. 매일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리더일지라도 그 리더의 방향에 맞추어 섬기다 보면 성장하고 발전하여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유익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어야 한다. 모든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전후세대 미래는 복음에 달려있다!

〈1면에서 계속〉

두 번 째는 서방 세계를 일방적으로 증오하면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만을 고집하거나 정권을 잡고 부정과 부패만을 일삼는 아프간 현 정치 상황에서 미래의 "새로운 아프간"을 건설할 수 있는 리더십의 양성이다.

미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기반으로 신앙단체이자 비영리단체인 "브레인차일드 오브 모닝스타 디벨로프먼트"는 이미 아프간 전역에 39개 마을, 총 15,000명의 아프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었다.

탄지 사이단 마을에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컴퓨터 클래스가 개설돼 있어 10-20세 사이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컴퓨터 바탕화면을 만들 수 있고 정기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첨단 소프트웨어 사용에 한창이다. 따라서 아프간 현지어인 다리(Dari) 대신 영어로 컴퓨터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영어 숙달에 열심이다.

또한 미디어 센터에는 시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FM라디오가 24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흐르고 있고, 저마다 셀폰들을 사용하고 있다. 마을 전체로 흐르는 음악 사이사이에 예방 접종이나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무료 영어 클래스에 대한 안내방송이 흐르고 있다. 또한 아프간 정부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한 전기가 마을 중앙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 마련된 태양열을 통한 발전기를 통해 마을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떠나지 않고 세계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EM 사역자(Part-time) 청빙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Youth 그룹을 섬길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
- 1.5세, 2세 사역에 소명 있는 분
-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 분
-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 또는 2년 이상 마치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목회소견서
접수마감일
- 충원시까지
보내실 곳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Rev. Kun Taek Lim)
9135 132St, Surrey, BC
V3V 5P6 CANADA
E-Mail: philachurch@naver.com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
604-584-5780 / 604-584-5717(Fax)
http://www.pcov.org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복음을 싣고 나갑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복음무장 구호선교단체만이 희망 등대

월드, 아프간 10년 전쟁 끝 미군철수준비...미래 전망 보고

〈2면에서 계속〉

"브레인차일드 오브 모닝스타 디벨로프먼트"는 어떠한 정부 지원도 없이 건강 클리닉, 교실, 회의실 그리고 미디어 센터로 구성된 커뮤니티 센터들을 건설하고 운영요원들이나 직원들을 모두 아프간 현지주민들을 고용하고 있다. 여기에 응급의료 상황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앰블런스까지 구비하고 있어, 지역사회 병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정적인 것은 우물을 파서 마을 전체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우물은 건기가 있는 아프간 현지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닝스타에서 아프간 국내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라픽(Mohammad Rafiq)은 다음과 같이 아프간 전후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아프간 젊은이들에게 묻는다, '전사가 되겠는가 아니면 컴퓨터 클래스나 노트북에 대한 교육을 받겠는가?'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너무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치를 만큼 치렀기 때문이다."

아프간 전역에서 주로 농촌과 산지를 대상으로 첨단시설이나 의료장비까지 구비된 상태에서 젊은 세대들이 생존을 위한 전사가 되기 위해 극단적인 이념이나 전투 기술이 아닌 컴퓨터와 영어를 통해 지구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까지 육성하는 그동안의 열정과 사역은 강경하게 군사력만으로 아프간 상황을 해결해보려고 했던 미국 정부까지도 움직이게 만들었다. 즉 1993년부터 아프간에서 고독하게 사역해온, 신앙을 기본으로 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아프간 국민들에게 반저항 정책이나 반테러 전략만을 가르쳤던 미국 정부보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9년 미 국방부는 아프간 국민들을 잠재적 저항 세력이나 테러분자로 여겼던 정책에서 180도 선회해 아프간 국민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즉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이른바 "아프간 핸즈(Afghan Hands)" 정책을 발진시켰다.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과 아프간 국민들의 필요가 하나가 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정책을 발동시킨 것이다. 실제로는 국방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현재 "아프간 핸즈" 정책은 마치 모닝스타와 같은 NGO 프로그램들과 흡사하며 향후 아프간을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육성에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연령 18세, 25세미만 60%...트위터 등으로 지구촌 문화흐름 파악
미국방부 아프간 국민들과 관계개선 시도...향후 리더십육성에도 한 몫

바로 아프간 청년들의 높아진 교육 열기가 이를 반증한다. 즉 911테러 사건이후 아프간에는 오직 4개 대학만이 4,000명 정도의 남학생들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재 20개 공립대학교들을 비롯해 30개 사립대학들이 10만 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중에서 30%가 여학생들이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 구축된 SNS, 그리고 영어 구사력과 다른 전문 기술들로 무장함으로 이들은 불확실한 아프간의 미래를 밝혀줄 리더십의 핵심이 되고 있다.

모닝스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현재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안은 다름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전후 세대들은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과 명예만 생각하는 부패한 정부 관리들의 온상이 된 현 정권의 부정과 부패 때문이다.

한마디로, 아프간의 진정한 적은 탈레반이 아닌 정부의 부패와 부정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아프간 정부의 부패는 상상 이상이다. 따라서 오히려 탈레반 정권이 그립다는 국민들까지 있을 정도로 아프간 내부의 적이 바로 현 정권이다.

현재 미국의 평화협상 기대와는 상관없이 탈레반은 북부와 서부에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동부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군은 탈레반에 맞서 작년 한 해만 5465개의 폭탄과 헬파이어 미사일을 아프간 마을에 퍼부었다. 그만큼 아직 아프간은 치열한 전선이다.

이 전선 안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 단연코 뇌물수수와 부정부패가 아프간 정부의 최고위층에 이르기까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아프간 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정부는 국민에게 불신의 대상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아프간의 미래는 전후 세대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 정권의 부패와 부정을 보고 자란 이들은 다행스럽게도 건강한 리더십을 배우고 다듬기 위해 대학에서 크리스천 단체나 기관들에 의해서 마련된 강좌나 클래스를 듣고 있다. 현재 아프간 수도 카불의 카불대학에도 성격과 가치 발달을 형성시켜 균형 잡힌 세계관과 평화구축, 정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감성과 마음을 가진 미래의 리더십을 양성시키고 있다.

결론으로, 아프간은 현재 전쟁중이다. 탈레반 잔군들의 복귀로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현 정권의 부패보다는 탈레반의 엄격한 정책을 지지하며 폭력으로 저항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이에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이 치열한 전투와 동시에 평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년이나 계속되는 전쟁에 지칠 대로 지친 전후 세대들은 아프간에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분주하게 이를 준비하고 있다. 바로 복음을 내세운 모닝스타와 같은 비영리적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미 30년 전부터 이러한 희망의 씨앗을 아프간에 심었고, 그 열매를 이제 맛보게 되는 시점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관계형성, 본이 되는 모델 그리고 멘토링이라는 과정들이 더욱 더 그 과실과 열매에 맛과 향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프간의 미래는 부패와 전쟁으로 아주 실망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아프간 국민 저변 즉 풀뿌리 차원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많은 성공과 희망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아프간 현지에서 사역하는 많은 기독교 및 비영리주의적 인도주의 단체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PSALMS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

시편 61편

시편 61편에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7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또 8절에도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라고 하여 '영원'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셨습니다(창2:7).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용할 수 없지만 이 육신 후에는 내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몸을 아버지께서 또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몸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몸입니다. 영원한 몸! 그 몸을 이제 우리가 입고 살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기간 속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기간은 아주 잠깐입니다(약4:14; 벧전1:24; 대상29:15).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은 영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 사람의 생각을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만, 즉 육신 가운데만 머물러 있도록 묶어 놓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육신 가운데서(롬8:6; 고후10:5)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받은 생각을 자유하도록 운동시켜주어야 합니다.

새가 공중에서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이 가도록, 말씀대로 보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의 날개에 독수리같이 힘을 얻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아무리 풀어 봐야 결국은 세상의 걱정 근심에서 죽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영역을 따라서 생각을 넓혀 나가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생각이 자유케 되는 큰 힘을 얻습니다. 걱정은 그대로 있지만 걱정을 안 하니까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각의 날개를 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춰주신 저 태양의 밝은 빛으로 우리가 밝게 살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땅에 피는 이 꽃들도 아름다움을 피우는데 하물며 꽃보다도 귀하게 지음 받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입만 열면 걱정이고 염려가 태산이면 그 꽃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원히 사는 길에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무대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이시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영원히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도 다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버지의 은혜로 전적으로 살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하게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나의 삶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명이란 나의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오"(골3:11),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는 나의 인도자시오 보호자시오 힘이시오 지혜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천국에 가서만 아버지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면서도 아버지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힘으로 몸이 살았던 것처럼(신8:3),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신령한 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담임목사 청빙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KAPC)에 소속된 시카고 근교에 소재하고 있는 헤브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헤브론 교회를 위하여 선택해 놓으신 담임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자격조건:

- 헤브론의 변치않는 비젼을 승계 발전시킬 리더십과 영감있는 복음적 강해 설교의 은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1,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실 분
- 정규 대학과 본 교단에서 인정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M. Div 이상)으로 본 교단소속 (KAPC) 이나 혹은 본 교단에 법적으로 가입 하실 수 있는 분
- 한어 및 영어 소통이 가능한 분으로 담임 또는 부목사로 5 년이상 Full Time 목회 경험이 있는 분

제출 서류: 1차 기본 서류:

- 본인 이력서 1 부 및 사모 이력서 1 부
- 신앙고백과 목회철학 1부 (청빙 조건에 대한 의견 포함)
- 자기소개서 1부 (성장과정, 가족사항, 목회동기 및 경력사항 포함)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안수증명서 1 부
- 추천서 2부 (목회자2 명) – 추천인 연락처 기재 (밀봉 날인 필수)
- 최근 6 개월내 설교 2회분 (CD, DVD 동영상 또는 web address)
- 본인 및 가족 사진 1매 (6 개월이내)

2차 제출 서류: Email개별 통지자에 한함

- 본인 및 사모 건강 진단서 1 부
- 교단 소속 증명서

서류 제출 마감일: 2011년 11월 15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제출처: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Hebron Presbyterian Church
P.O Box 7506, Prospect Heights, IL 60070
이메일: hebronpnc@gmail.com
(E Mail 접수를 선호함. 문서는 Word Doc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헤브론 교회
청빙 위원회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살아 계십니까 ?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또 하나의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종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다른 종교를 만들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와 고통과 죽음의 세계로 추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시며 들으시며 행동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은 피조물인 사람들이 주도하여 교훈과 계율로 만들어가는 '종교생활'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멀리서 겉모습만 보면 조화와 생화가 구별이 잘 안 되듯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도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신체적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여기서는 신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요 6:48).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갈 2:20)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엡 2:1).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서 살아있는 생명만이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생존하시는 하나님"(시 42:2)께 살아있는 예배, 살아 숨 쉬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슬픈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덧 생명 없는 종교생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시대가 바뀌며 중세 교회는 어느덧 종교화되어 또 하나의 다른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개혁된 교회도 또 다시 종교화 되어가는 오늘날의 모습을 봅니다.

종교인처럼 종교생활을 하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감격, 기쁨,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푸/ 른/ 초/ 장

한종수 목사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비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무엘상 3장 1-18절

우리는 지금 계속되는 불경기로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젖을 뗀 후 서너 살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삼상2:11). 성전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빌트인(built-in) 시켜주셨는데 그 비전이 아직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작동시키질 않아서 액티베이트(activate)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로 다가와 들려질 때부터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은행으로부터 1만 달러짜리 크레딧 카드를 받았어도 그 위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고 전화를 해야 액티베이트가 되어 그 때부터 크레딧 카드가 웰킹(working)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부터 비전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original design)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비전도 모른 채 마치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삼상3:1)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vision)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삼상3:1). 그런 상황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해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 번씩 불러도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사무엘은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삼상3:7)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로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귀를 긁어 줄 소리만 들으려 합니다.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딤후4:3-4)고 사도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삼상2:17)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전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전이 작동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라디오에 많은 채널이 있어도 radio도 주파수를 잘 맞추어야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 주파수를 찾는 비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여유입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일장 훈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여유와 시간을 드리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급하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쁘답니다. 급히 가야하니 빨리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램 힐슨이라고 하는 현대 영성학자가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너무 바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 noise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매스미디어에 온통 사람 소리로 가득차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비전이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원더풀 플랜(wonderful plan)인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3:10)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삼상15:2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작정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경기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비전이 작동됩니다. 비전이 작동될 때 불경기의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 청빙

Whichita Baptist Church is looking for pastor who must be a committed follower of Jesus Christ, a person whose life bears testimony of divine calling and gifts for ministry, and one who joyfully accepts his responsibility convinced of God's leadership and the enthusiastic affirmation of the church. He will lead the church in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Qualifications/Requirements
1. 언어:이중언어 (영어/ 한국어) 영어로 원활하게 사역이 가능하신 분(1.5세 한인 희망)
2. 교육배경 : 신학대학원 이상
3. 나이: 30세 이상
4. 목회경력: 최소 3-5년 담임목사 경력자
5. Immigration status: 최소 이민법상 Permanent resident 이상 이신 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해당 문서를 첨부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와 3년 이상 아시는 분의 추천서 3통(Include their contacts)
- 개인 소개서: 가정, 성장 배경, 신앙간증, 목회철학, 목회방침, 관심분야, 달란트
- 설교 2회분의 mp3, DVD, CD(택일) 와 해당 설교 노트 또는 프린트물
- 대학/신학원 졸업증
- 연락방법(전화/주소/Email)
- 운전면허증 복사본
- 이민법상 영주권자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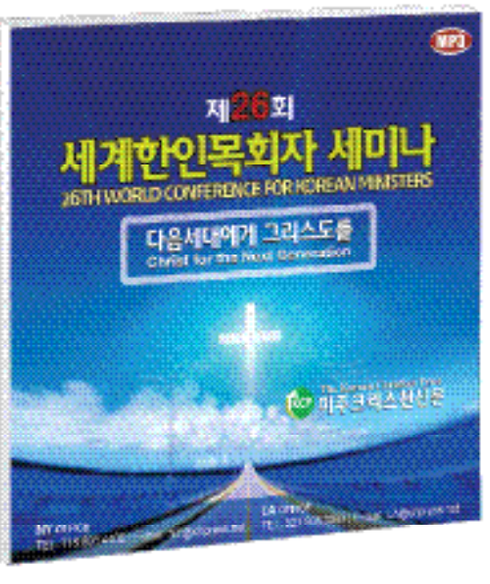
모든 서류는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tt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Wichita Korean Baptist Church
9736 Chamberlin
Wichita, Kansas 67206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kbchurch@gmail.com

위치타 한인 침례교회
http://www.wkbcks.org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6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들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 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홍의영, 여운세, 송용걸, 이영섭, 김만형, 김상덕, 조일구, 홍민기, 송규식, 김혜천, 박현남, 길승연, 장영춘 목사를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슬람의 종교 핍박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이란에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가?

다시 이란이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 2008년도 영화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영화 'The Stoning of Soraya M'은 1990년도의 이슬람이 지배하는 이란의 사회의 부조리한 실체를 고발하고 있다. 한 시골 마을에서 탐욕과 부정으로 가득한 한 남자가 재혼을 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서 마을의 남자들은 물론 자기의 아들까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란에서 통용되는 통념 "모든 여자는 죄인이고 모든 남자는 무죄하다"는 이슬람 사회의 비인간성과 부조리를 고발한 영화이었다.

이 사건의 종교적 버전으로 이란의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의 사건이 있다. 이슬람권 나라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그들의 종교의 자유는 오직 이슬람을 믿을 수 있는 자유이다. 다른 종교를 믿는 자유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기독교인은 사형이다"라고 주장한다.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의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란의 가정교회를 섬기는 34세의 젊은 목사이다. 그에게는 아들 둘과 아내가 있다. 그가 기독교인이고 교회의 지도자라는 이유로 그를 공격하는 조직적인 박해가 그가 사는 라칸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었다. 그는 2009년도에 체포되어서 지금까지 수감 중이다. 그의 죄명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배교' 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다. 그의 아내도 옥살이를 했다. 사실 그는 배교한 것이 아니다. 그는 15세 이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그의 아버지가 무슬림이니까 무슬림 전통을 이어 받았고 따라서 그는 배교자라고 주장한다.

이란의 최고법원은 하급법원으로 재심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심은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면 사형을 면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취소하고 이슬람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사형시킨다는 내용이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를 거부했다. 이제 사형집행만 기다리는 중이다.

그의 이야기는 Jay Sekulow가 이끄는 ACJL,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이라는 기독교 법률사역단체가 이 사건을 소개했다. 아들 Jordan Sekulow가 글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글이 워싱턴포스트에 실리면서 미국과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700Club은 물론, CNN, Fox News 등의 TV와 신문사들을 통해서 나다르카니 목사의 이야기는 세계에 소개되었고 그는 핍박당하는 이란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다르카니 목사의 경우는 특별하다.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박해가 있지만 보통은 처형된 후에 알게 된다. 하지만 이번은 과정을 알게 되어 지켜보면서 우리의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미 하원의장인 존 보너는 9월말에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의 생명을 상하지 말고 즉각으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영국의 외무장관인 윌리엄 해규도 깊이 유감을 표시하고 말하며 이란 정부가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 결정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유감을 표시했다. 이 사건을 서방의 언론이 다루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란 당국도 알고 있다. 세계는 언론을 통해서 이란내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슬람 이란정권은 이번 계기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에 대한 형벌의 본보기를 삼고 싶어 한다. 이제는 서방의 압력과 관심이 커지게 되니까 이란내의 최고의 지도자 호메이니도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되었다. 나다르카니 목사에 대한 입장을 11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한다. 12월에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나다르카니 목사의 독특한 개인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회도교권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이슬람을 믿을 자유이다. 다른 종교를 믿을 자유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슬람권의 나라들에서 배교(apostate)는 이슬람 종교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죄명이다. 그들의 규범인 샤리아에 의하면 배교를 하면 사형시키라 명령한다. 이것은 수니의 4대 종파는 물론이고 시아크의 주종파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배교를 하면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한다. 여자가 배교하면, 어머니가 딸이 배교했다고 인정하면 사형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 가두어 뉘우칠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하루에 5번씩 매를 맞는다. 이것은 그들의 명령이고 법률이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개종한 사람은 '배교자'로 규정되고 끊임없이 위협과 협박을 받는다. 배교자의 가족과 자녀들마저도 위협을 받는다. 여자들은 강간을 당할 것으로 위협하고 폭력을 당하고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은 이슬람권내 있는 성도들의 경험하는 매일의 현실이다. 이제는 이 법률을 아프리카에서도 시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슬람을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위협은 매우 실제적이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이란에서도 배교자에 대한 형벌, 이슬람법 샤리아(Sharia)의 미명 아래 시행되고 있다. 비록 그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도 개종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주거지를 옮기며 살고 있다고 한다.

이슬람 나라들은 UN에서 이슬람권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국제법을 통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내용은 이슬람에 반대하여 말하는 것은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자기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슬람을 전파하면서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국제법상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통과되면 이슬람권 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국제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위법으로 처형을 받게 되어진다. UN에서 이런 악법이 국제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실 이슬람권 내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막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제법의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왜 부인하는가?

이슬람의 미국 내의 확장도 놀랍다. 911이전에 미국에는 1200개의 모스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6000개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 여기에서 각종의 반미와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슬람은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이슬람학교들을 세웠다. 그들은 어린 학생들을 미래의 이슬람전사들로 집중 양육하고 있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이슬람은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을 장악한다. 그들은 미국의 문화와 정치를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이슬람화 할 세계정복을 꿈꾼다. 그래서 오일머니 수입의 엄청난 자금이 학교와 교육에 투자된다고 한다.

미국의 Christian Press는 2010년 6월 이래로 2011년 초까지 202명의 성도들이 구속되거나 구금되었다고 보도했다. 2009년에 이란정부는 이란에서 가장 큰 교회의 금요일 예배를 금지시켰고, 다른 교회들도 정부의 교회에 대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슬람의 교회 핍박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리고 나다르카니 목사의 이야기가 이들의 핍박의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서 법률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돕는 ACLJ과 같은 단체들을 통해 미국 정부와 세계 지도자들에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또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무슬림 선교단체들을 위한 도움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부활하신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스데반은 믿음을 지켰고 또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주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계심을 보여주셨다. 주님은 이 사건 역시 주목하고 계심을 믿는다. 주님이 서서 계신 것처럼 우리도 나다르카니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위한 성령님의 효과적인 도움을 간구하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인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인지 아니면 다른 때인지요? 보다 상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행콕팍에서 김 장로

A: 바울은 2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사울이란 이름과 다소와 로마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바울이란 이름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뀐 것이 언제부터인가? 다메섹 사건을 결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은 사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초대 안디옥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최초로 쓰여진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후부터는 사울의 이름이 사라지고 이젠 바울이란 이름으로 계속 사용되게 됩니다. 그 후로는 사울이란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란 이름은 그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선교사로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중생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울은 중생회심과 함께 이방선교의 사명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기도와 말씀과 회개로 이방선교를 위해 영적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예루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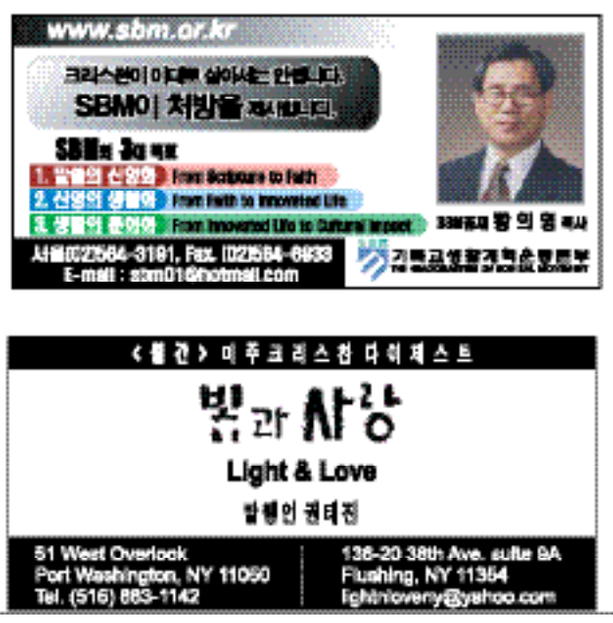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받은 후 바울로

렘으로 와서 본격적인 전도에 나서려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행9:29-31).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 비몽사몽간에 주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므로 그는 순종하여 자기가 태어난 고향 다소로 가서 거의 8-10년간을 은거하며 무명전도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울이 다소에서 무명전도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할 때에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일군이 부족하여 부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1년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부교역자로 바나바와 함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1년간 사역하게 되었을 때 행13장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과 다른 3명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따로 선교사로 보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후로 사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파송 받게 되고 그 후로 사울은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면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지게 된 것입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야칸(YAKAN)

야칸족은 대게 민다나오(MINDANAO)섬 남서부 지점에 인접한 바실란(BASILAN)의 원주민들이며 주로 산지 내륙의 중앙과 남서부에 산다. 바실란은 4월부터 10월까지 우기와 11월부터 4월까지 건기를 갖는 열대성 기후이다. 사콜(SACOL)섬에도 작은 야칸족 공동체가 있다.

7만1천7백 야칸족은 바실란(BASILAN) 인구의 절반이 안된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다른 남부 필리핀 무슬림 집단과 단지 종교적인 동맹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관련돼 있지만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닌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술루(SULU)의 술탄이 그의 소유지 일부로 바실란을 요구했었지만 스페인 정부가 바실란의 북서부 연안에 요새를 세운 1842년부터 기독교인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오늘날까지도 섬에 기독교 인구가 꽤 많이 남아있다. 1970년대 남부 필리핀지역 야칸족에게 폭동이 발발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했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야칸족은 물소로 쟁기질을 해 땅을 경작하는 농부들이다. 쌀은 그들의 주요 작물이고 카사바와 코코넛을 또한 재배하지만 쌀은 늘 부족하다. 모스크 연합에 근간을 두고 정착지를 형성해서 거주하는데 따라서 이들 회교사원은 공동체의 중심이 된다. 집들은 들판에 흩어져 있어 촌락의 끝과 다른 촌락의 시작이 어디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촌락의 주민들은 같은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핵가족들은 보통 기둥을 세워 만든 사각형 모양의 집에서 함께 산다. 집들은 전통적으로 초가지붕이지만 오늘날에는 물결모양의 양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집안에는 여자들을 위해 구분된 공간이 없고 단지 하나의 큰 방만 가지고 있다. 부엌이 집을 연결한다. 야칸족은 노동에 남녀 구분을 두지 않는다. 여자들이 가정의 허드렛일을 하고 남자들은 보통 바깥뜰을 경작한다. 하지만 여자들은 농사일을 돕고 남자들이 집안일을 돕기도 한다.

무슬림으로써 야칸족은 4명의 아내가 허락되지만 이런 풍속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전에는 결혼이 주로 중매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당사자들의 의견도 반영된다. 아직도 신랑이나 그의 가족들은 신부측에 신부대(代)를 지불해야 한다. 신혼부부들은 보통 신부나 신랑의 부모님들과 함께 산다. 이후에 신랑이나 신부 중 어느 한쪽이 가진 소유지에 자신들만의 집을 짓는다. 이들에게 이혼은 흔히 있는 일이며 남자나 여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단위이며 재산분배의 경우 딸에게는 아들이 받는 재산의 반만큼만 상속하라는 코란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야칸족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눈다.

야칸족은 악기 연주를 즐기는데 주로 생일과 결혼과 장례시에 플룻, 유대인식 하프(JEW'S HARPS), 타악기 등을 연주한다. 또한 농사할 때도 곡식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음악을 연주하는데 야칸족은 이런 기분 좋은 음악이 풍성한 수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신앙

야칸족 대부분이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이다. 이맘(IMAM)은 공동체의 종교지도자이면서 다양한 의례들의 진행을 맡는다. 야칸족은 이슬람력을 따르고 매년 무함마드의 생일과 같은 무슬림 축제를 지켜 행한다. 생일이나, 코란 공부과정의 수료, 결혼, 장례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도 이슬람식 예식들이 행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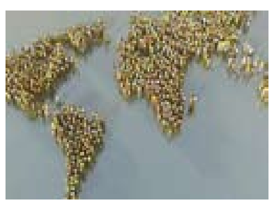
야칸족은 그들 전통 정령숭배사상의 많은 부분들을 이슬람 예식들에 혼합시켰다. 그들은 때때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령들을 믿는데, 특히 무슬림력의 두 번째 달에 한 악령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한 고통을 준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야칸족은 강한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현재로는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거의 없다. 더 많은 사역자들과 전도의 도구들이 필요하다. 기도는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한 열쇠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세계 인구 70억명 도달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1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는 세계 인구가 31일 70억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인구 증가는 식량 부족, 환경 파괴의 심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 번영을 위해서는 각적인 대응이 필요로 된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지난 27일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도록 한다면, 우리의 70억 인구는 번영과 지속 발전하는 도시들,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생산적 노동력, 경제와 사회의 안녕에 공헌하는 젊은이들, 건강하며 활동적으로 그들 사회의 일에 참여하는 더 나이든 이들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체 세계 인구 중 중국과 인도 인구는 각각 13억5천만과 12억4천만으로 합해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인구는 3억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 인구의 60%는 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15%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인구는 2050년경 2배 또는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이 지역 빈곤과 기근 문제의 해결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세계 인구 70억 도달은 우리의 경종을 알리는 사건이다. 지금 바로 우리는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수정교회, 채프먼대학교에 매각하기로

미국 수정교회가 채프먼대학교(Chapman University)에 매각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크리스천포스트(CP) 보도에 따르면 수정교회 파산대책위원회는 채프먼대학교에 5천만 달러에 40에이커 가량의 교회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채프먼대학교는 임대 방식으로 수정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주요 건물들을 원할시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로 했다. 채프먼대학교는 "우리는 우리 대학교를 매입자로 선택한 교회의 결정에 기쁨을 표한다. 수정교회의 편의를 도우면서 또한 우리 학교의 건강과학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을 영예롭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교회 설립자인 로버트 H. 슐러 목사는 "모든 채권자들이 이로 인해서 지불을 받게 될 것이며 수정교회의 사역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개혁교회(RCA)에 속한 수정교회는 미국 최초의 대형교회로서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인 예배당과 전 세계 수많은 복음주의 시청자들을 거느린 '능력의 시간(Hour of Power)'이 방송되는 장소로 유명하다. 그러나 2006년 로버트 H. 슐러 목사 은퇴 이후 자녀들 간의 담임 목사직 승계 다툼으로 교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결국 작년 10월 파산 신청을 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가톨릭 교구 역시 매각을 원하면서 강력한 매입자 후보로 알려졌으나 결국 교회 파산대책위원회는 채프먼대학교를 선택했다.

'휴거논란' 해롤드 캠핑, 회개와 사과 성명 발표

지난 10월 21일 휴거 예언 실패를 끝으로 근 20년간 주장해 왔던 자신의 시한부 종말론이 틀렸음을 시인한 해롤드 캠핑이 회개와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기독교 계열의 라디오 방송사 패밀리라디오 창립자인 캠핑은 지난 1992년부터 자신이 성경을 통해 대홍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 재림 등의 사건들의 날짜를 계수할 수 있는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이에 따라 1994년 9월 6일을 휴거의 날로 예언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5월 21일, 10월 21일을 각각 영적 휴거와 실질적 휴거의 날로 예언했지만 모두 빗나갔음을 얼마 전 시인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28일 캠핑은 패밀리라디오를 통한 성명에서 "추종자들을 잘못 이끌어왔으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캠핑의 예언을 믿은 미국과 세계의 많은 추종자들이 직장,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혼하고, 자살하는 등의 피해 사례들이 발생했었다. 캠핑은 지난 5월 21일 예언 실패 당시 이같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자, "마음은 아프지만 나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번 성명에서는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때로는 때때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항상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며 "나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캠핑은 얼마 전 패밀리라디오 대표에서 물러났으며, 패밀리라디오는 10월 21일 이후로 캠핑의 예언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다.

터키 선교단체들, 대지진 피해에 긴급 기도 요청

터키에서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긴급 기도와 구호가 요청된다.

지난 23일 터키 동부 반주(州)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432명의 사망자와 1천여 이상의 부상자가 나온 상황이다. 또 지역 전체를 통틀어 2천여 건물이 붕괴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선교단체들과 구호단체들도 기도와 구호 운동에 나서며 세계 교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터키에서 활동하는 국제선교단체인 아슬란(ASLAN) 인터내셔널은 "터키 국민들은 몹시 마음 아파하고 있다. 특히 피해 지역은 터키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피해자들 중에서는 가진 것 모든 것을 잃은 이들도 있다"고 전하고, "우리는 터키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터키에 자비를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구호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모든 필요한 구호 인력과 물품이 공급되며 △아직 폐허 속에 갇힌 이들이 빨리 구조되고 △생존자들도 위로 받으며 △재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터키 적십자는 현재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서 1만3천여 텐트를 제공했지만 그 수가 매우 부족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비아 위한 전 세계적 기도운동 일어나야"

리비아의 미래를 위해서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한 아랍 선교 지도자가 희망했다. 아랍 월드 미니스트리즈(AWM)의 데이빗 인스는 포스트 카다피 정권 수립을 앞둔 리비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기도가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다피 사망 이후 아랍 선교 지도자들 간에 리비아의 미래에 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아무도 확실한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임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교회들에서 리비아를 위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한다"고 밝힌 그는, 먼저 새 리비아 정부는 리비아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의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리비아의 기독교인들이 헌법상 종교자유를 보장받으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 역시 권했다. 리비아의 기독교인 수는 수천에서부터 15만여 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그는 '아랍의 봄' 기간 아랍 국가들에서 이슬람 세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우려하면서도, 과도기적인 이 시기가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 열린 문은 닫기 힘들다"며 "최근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 우리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은 리비아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문의하곤 한다. 우리는 이미 교회의 성장을 보고 있고 한 번 열린 이 문은 많은 열매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오더라도 기독교인들이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종교다원주의 연구 (12)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기독교를 향한 도전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원주의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를 근원적으로 부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기독교가 지닌 종교적 독특성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여러 종교중의 하나로 전락 시키는 행위이다. 그것은 '유일성'을 포기한 종교이다. 기독교는 타 종교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절대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종교라는 개념의 틀이 만들어진 후 인간의 경험 속에서 생겨난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향한 종교다원주의의 강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성경의 진리 도전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에 의하여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들은 성경의 영감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닌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그들은 성경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화로 이해한다. 마치 우리가 불경과 코란을 통하여 불교와 이슬람을 이해할 수 있듯이, 그들도 성경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를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곧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존 힉과 폴 니터가 공동 편집한 책이 있는데, '기독교 유일성의 신화: 종교 다원주의 신학을 향하여'라는 제목이 흥미롭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을 인정하면 종교다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을 예수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이해하고 비평적 방법으로 해석하던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성경관을 담대하게 수용한다.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역사이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 창조로 시작된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진행된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도 독특성을 잃지 않았다. 복음의 순수성은 교회의 생명이었다. 때로는 영적으로 쇠퇴하고 타락하여 본연의 자세로부터 멀어진 적도 있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의 혼합과 대치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성경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무엇을 말하는가? 기독교는 배타적인 성격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계시하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를 독선적이라 할 수 없다.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와의 차이점은 참과 거짓이란 명백한 대조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도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다양한 종교가 지닌 구원의 내용을 일반화시킨다. 그들에게 인간의 어떤 능력과 노력을 통한 구원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유일성, 즉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에 근거한 기독론이 형성되기 전까지 주의 교회는 다양한 이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로 인하여 생겨난 기독론 논쟁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화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닌 문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을 이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종교는 소위 '우주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접하지 않는 자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칼 라너가 주장한 대로 '익명의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을 논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라는 인물의 역사성과 함께 그의 사역과 인격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나 개념을 수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아가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구세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를 우상숭배자라고 비난한다. 또한 다른 종교를 인정하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믿는 것만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편협한 교리주의자들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절대화를 강하게 부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신에 위배되는 자세라며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다른 행위는 '궁극적 실재'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우주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신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 중심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그들은 모든 종교가 초월된 신적 실재를 믿는 믿음을 제시하며, 구원은 곧 인간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교, 이슬람, 기독교는 각 종교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 구원이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서로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구원의 내용을 일반화 시킨다. 인간이 처한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도달하는 목적은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이와 같이 성경이 증거 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할 뿐 아니라,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구원 역사를 노골적으로 부인한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를 부정하는 그들이 이해하는 '궁극적 실재'는 추상적인 존재이다.

WCC와 종교다원주의

1975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모인 제5차 WCC 총회에서 '신앙과 직제'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에큐메니칼 교회론을 수용하는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였다. 로마가톨릭, 불교, 힌두교, 유대교 대표가 참관인으로 처음 참석하여 회원으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종교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부분적인 계시의 가능성을 담은 '제3분과 보고서'의 초안이 발표되자, 본 회의장에서 수많은 찬반 의견이 쏟아져 나오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WCC 총회의 공식 모임에서 종교다원주의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WCC에 속한 회원들 중에는 이미 종교다원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들에게는 종교 간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칼 라너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모든 종교가 동일한 구원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의 '바아르 선언문'은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14면으로 계속〉

종교다원주의자, 효과적 선교위해 그리스도 유일성 포기
WCC, 1975년 총회부터 에큐메니칼교회론 수용 점증화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62.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58:12) : 예수님의 무덤에서 진화론의 무덤으로

지구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건현장 그랜드캐년, 창조 진화의 최후격전지

지층들을 과학적 연대측정 아닌 진화론에 맞춘 표준화석 나이로 결정

그랜드 캐년은 세계적인 관광지다.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생 동안 꼭 한 번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다. 규모가 엄청날 뿐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동 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보여주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곳의 내력을 조사해보면 이곳은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비통하고 처참한 사건 현장들 중의 한 곳임을 알게 된다. 필자가 속해 있는 창조과학선교회가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 이유는 그 곳이 그 사건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그곳이 창조와 진화의 최후 격전지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랜드 캐년의 겹겹이 쌓인 지층과 그 속에 감추어 있는 수 없이 많은 화석들은 진화론이 말하는 수억 년의 시간이 아닌 불과 몇 개월의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을 선명하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그랜드 캐년을 노아홍수의 기념비라고 부른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진화의 반대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칼럼을 읽는 크리스천들 중에는 사람이 아메바 같은 단세포에서 원숭이처럼 생긴 동물로,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의 인류로 진화했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그러나 2세들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화론의 토대가 되는 긴 시간을 사실로 믿어줌(!)으로써 진화론이 마음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 거점을 제공하고 있다.

진화론이 필요로 하는 시간은 수십억 년이다. 생물 진화에 필요한 시간은 최초 생명체 탄생에서 지금까지 약 38억년을 요구하고 있다. 화학진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지구 나이는 46억년이 필요한데 이 영원과도 같이 긴 시간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로 믿고 있다(물론 깊이 생각하고 확인해 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뇌된 결과일 것이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진화론은 이 긴긴 시간에 의지하고 매달려 겨우 생존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 봐도 찾을 수 있는 우주의 시간은 불과 6000여 년 밖에 없다!

진화론은 지구의 생물 역사를 고생대-중생대-신생대로 구분한다. 6억 년 전부터 2억 년 전까지를 고생대, 2억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 그리고 그 이후를 신생대라 부른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역사와 성경 역사는 아무리 타협을 하려 해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일 수 없다.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신생대말 약 10만 년 전에 지구에 나타났으므로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지구에는 죽음이 존재했다는 말이다. 이는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로마서 5:12)는 성경과 정면충돌한다. 또 다른 의미는 인류의 첫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아니라 수많은 유인원에서 진화한 동물이라고 말한다. 결국 진화론은 죄 없었던 첫 아담을 부정함으로써 죄 없었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설 자리마저 빼앗아 버린다.

21 세기의 종교개혁은?
무신론적 과학(진화론)으로 오류가 있는 책이 된 성경의 권위가 회복 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종합하면 진화론은 예수님을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지층 속에 묻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만약 어느 한 크리스천이나 교회나 신학교가 '고생대-중생대-신생대'를 사실로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나 교회나 신학교는 진화론자들을 도와 거기에 예수님을 묻어버리는 일을 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고생대-중생대-신생대는 사실 역사가 아니라 진화론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다. 이론적으로 지층(퇴적암)은 연대 측정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지층들은 과학적인 연대 측정을 통해 순서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각 지층 속에 들어 있는 표준화석(index fossils)의 나이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표준화석들의 나이를 알아야 하는데 이 화석의 나이도 측정을 하지 않는다! 모든 화석의 나이는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 맞추어 결정된다는 비밀을 아는 일반인은 거의 없다.

"화석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뼈들은 당신이 듣고 싶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Shreeve, Argument over a woman, Discover 11(8):58, 1990) 한 진화론 작가의 탄식이다. 결국 지층의 나이도 화석의 나이도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론의 믿음이 고생대-중생대-신생대라는 허구의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정직한 과학을 한다면 실험을 통해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순서가 옳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표준화석들의 연대를 측정해서 나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또,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법을 통하여 이들이 10만년 이상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이런 측정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몰래 측정을 하겠지만 결과는 절대로 발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로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순서와 무관하게 모두 비슷한 매우 젊은 나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화석이나 석탄을 탄소 동위원소법으로 연대를 측정해보면 진화론적인 시대가 사실이 아니며 격변적인 (노아)홍수가 사실임을 확증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 방법으로 나이를 알고 있는 암석의 나이를 맞추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각각 6년, 100년, 1000년 된 용암의 나이를 방사성 동위원소법(보통 K -Ar방법)으로 측정을 해 보면 수 백만년-수억년이 나올 뿐 아니라 6년, 100년, 1000년의 순서와 전혀 무관한 값이 나온다. 지면상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결론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은 나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아직까지 오랜 과거의 나이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없다.)

약 1마일 두께의 장엄한 그랜드 캐년의 수평 지층들은 모두 다 노아홍수 초기에 쌓인 것들이다. 진화론자들이 고생대 지층이라고 부르는 이 지층들 속에는 살아 있을 때 생매장된 생물체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들이 살아 있을 때 묻혔기 때문에 화석들은 마치 살아 있는 생물들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랜드 캐년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공동묘지보다 훨씬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다(심판의 현장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죄 없는 아담이 살던 세상은 얼마나 좋았을까!).

진화론자들은 고생대라고 부르는 그랜드 캐년의 지층 속에 예수님을 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아홍수의 심판 과정에서 생긴 증거들(지층, 화석, 석탄 등)은 예수님이 아니라 진화론을 묻어버린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랜드 캐년에 와서 마음속에 있는 진화론을 묻어버린다면 사람 중심에서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는 금세기 최대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뉴저지복음장로교회)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와 미혹작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엡4:14).

마귀는 속임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어진 인간의 능력을 악용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탐심을 부추겨서로 싸워 완전자멸에 이르도록 죄로 인간을 묶고 있는 죄의 왕 강도입니다.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가능한 의존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불신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순간 마귀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의 왕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온갖 미혹으로 하나님 자녀 된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강도며 도적입니다(요10:10). 거듭났더라도 여전히 사람은 구원에 따라오는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구원 안에 포함된 내용을 알아듣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성화되지 못한 육신의 탐심의 죄를 통해서 여전히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의 탐심을 통해 보도록 바꾸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반항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나를 돕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시녀로 부리며 자기 영광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합리화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무성한 만큼 마귀의 활동무대를 넓게 깔아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로는 우리의 죄성입니다(갈5:19, 롬1:24). 지저분한 오물이 있는 곳에 파리가 모입니다.

마귀는 신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불신자나 다름없는 허울 좋은 기복신자, 점차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못 마땅하여 혈기 넘치는 스스로 의로운 종교인으로 질타하며 살도록 몰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이 왕인 요즘 세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지만 마귀의 화신처럼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는 율법신자입니다. 이런 율법신자들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속감을 갖지 못하도록 자신이 누구인지?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신자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죄의 얽매 놓는 심리 전술작전을 살펴보려합니다.

첫째, 온 가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일단 죄짓도록 유혹에 성공하면 죄짓고 밀려들어오는 죄의식, 수치심, 자존심과의 싸움 등을 빌미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등등 오만가지 고소로 찌릅니다. 안으로는 너는 무용지물, 무익한 종, 쓸모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 등등으로 정체감의 혼란으로 절망의 우울증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사역도 인생도 자포자기하도록 정체감을 앗아가며 가슴에서 희망을 잃고 로뎀나무 밑으로 던져 넣고 의기양양 밟고 섭니다. 나아가 비위를 건드린 남을 향해서는 건드려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상대의 모든 것을 상처로 바라보며 비난으로 쪼개고 찌르고 미움의 활화산을 품고 분에 전인격이 삼키운 바 되어 이제까지의 모든 쌓은 관계들을 한 방에 박살냅니다. 안 팎으로 휘둘려 생의 의욕을 잃은 산송장처럼 된 지옥의 상태로 탈진시켜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겐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신자와 다름없는 죄에 지배당하는 삶에 얽매이도록 죄로 유도하여 이중인격 신자화를 꾀합니다. 신자의 사명감을 교란합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자연 복음전파의 불도 사라지게 되고 전도의 길이 닫힙니다. 진리를 혼동토록 교란해 때로는 이단으로 빠져 열심이도록 오도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경고하십니다. 진리를 가슴깊이 끌어안고 고소하고 질타하는 마귀를 내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명하시듯 누워있던 겉옷을 들고 일어나 걸으십시다.

"개혁운동 1차 대상은 나 자신!"

SBM·남가주목사회 공동 세미나 및 워샵 열어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총재 황의영 목사)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박효우 목사)가 공동주최한 SBM 세미나 및 워샵이 지난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진행됐다.

송규식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박효우 목사 사회, 정종윤 목사 기도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황의영 목사는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를 위한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목사는 세미나 서두에서 '개혁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임을 강조하고 "개혁운동은 먼저 나 자신이 개혁의 1차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먼저 거부한다.

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황의영 목사

왜냐하면 내 속에 개혁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개혁해야 할 것이 많다면 평신도들은 어떻겠는가? 나부터, 목회자들부터 개혁되고 깨어나고 바뀌져야 한다. 개혁의 주체는 나란 것을 잊지 말고 내가 개혁의 과정을 거쳐 개혁의 주체가 되자"고 피력했다.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 구실을 잘 못하면 세상은 어렵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왕성해지면 축복이 임한다. 다윗이나 히스기야도 말씀가운데 있을 때는 번성했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질병과 재난의 악순환이었다. 교회가 세상과 역사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역사를 책임지기 위해 영적으로, 말씀으로 바로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의영 목사는 1961년 첫 교회를 개척해 금년으로 사역50주년이 됐으며 그중 절반은 미국, 브라질 등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해왔다. 황 목사는 세계 각 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자료를 모아 현재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성자 기자〉

YWAM AIIM 주최 북한세미나가 풀러신학교에서 열렸다(사진은 세마나에서 말씀을 전한 오대원 목사)

북한복음화□남북통일 때 한민족 사용

YWAM AIIM 주최 북한세미나, 현지사역자 등 강의

YWAM AIIM(설립자 오대원 목사)이 주최한 북한세미나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풀러신학교(총장 리처드 마우 박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오대원 목사, 배기찬 선교사, 김대평 선교사, Jean Darnell, CK 등 YWAM 간사들과 북한 선교사들이 강사로 나와 강의를 인도했으며 고형원 전도사가 찬양인도를 했다.

28일, 북한현지에 거주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1.5세 CK 선교사는 '북한에서 선교'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북한에 가게 됐으며 그 소명은 '떠나고 가라'였다"고 말하며 "많은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북한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 북한과 교류하는 분들은 대부분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비즈니스는 해마다 정책이 바뀌기에 위험요소가 많다"고 밝히고 "북한에서 영주권을 얻어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그것은 현지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출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업종에 한해서"라고 밝혔다.

CK 선교사는 "많은 분들이 북한을 방문해 그곳 상황을 파악하길 바란다"며 "그곳에서 살기위해선 북한의 리더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북한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실무 책임자인 배기찬 선교사는 "북한 복음화와 남북이 통일을 통해 새로운 나라가 돼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시기가 가까워졌다. 한국선교사들과 세계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동포들이 선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족이 마지막에 쓰이는 것은 북한을 복음화하고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볼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의 상황까지 정확히 보고 나아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뭔지 가능한지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2012년 목회계획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김항안 목사

"2012년 목회계획 준비 이렇게 하라"

세미나 강사 한국교회정보센터 김항안 목사

한국교회정보센터(대표 김항안 목사)가 주최한 '2012년 목회계획을 위한 세미나'가 김항안 목사를 강사로 지난 31일 오전 10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항안 목사는 "일반적으로 주일예배를 마친 후 교인들이 담임목사의 축도 후 짧게 기도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간다. 그러나 이 시간을 기회로 잡고 교인들에게 그날 설교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과 교회와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또한 목사 역시 자신이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자신의 목회에 듬뿍 묻어날 수 있게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자"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훈련이다. 훈련은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미주지역에서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 새벽기도회 등을 비롯해 송구영신예배, 부활절예배, 성탄절 등 21세기 새롭고 독특한 콘텐츠와 새로운 목회 트렌드를 이론이 아닌 실제 노하우와 노웨어(Know Where)를 소개해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실제 목회에 필요한 다양한 목회정보를 제공했다. 〈박준호 기자〉

KPCA서노회 여선교회연합회 제26회 성가의 밤에서 주님세운교회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창립 제35주년 기념예배 및 성가의 밤

KPCA서노회 여선교회연합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노회 여선교회연합회(회장 윤영자 권사) 창립 35주년 기념예배 및 26회 성가의 밤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나성영락교회(담임 림형천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노회 친교부장 이규숙 집사(새한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성가의 밤은 나성영락교회(지휘 서정은 권사)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새한교회(지휘 임선아 집사)가 '거룩한 주 이름 송축하라', 서남교회(지휘 이소영 집사)가 '새노래로 찬양하라', 성광교회(지휘 변윤석 전도사)가 '주는 저 산 밑의 백합', 남가주명성교회(지휘 김중호 목사)가 '은혜의 강가로', 남가주한소망교회(지휘 홍유현 권사)가 '사랑의 열매', 주향교회(지휘 박지영 사모)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지휘 김진희 집사)가 '내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주님세운교회(지휘 김효인 집사)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을 불렀다.

또한 찬조출연으로 명성교회 김해영 전도사와 주님세운교회의 서숙경, 김명혜, 신영자, 신이경, 홍혜원이 워십댄스를, 샛별선교합창단(지휘 이경원)과 나성영락교회 늘푸른성가대(지휘 박명혜)가 찬양해 성가의 밤을 빛냈다.

한편 성가의밤 전에 열린 35주년 창립 기념예배는 김중호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 박국희 권사(부회장)가 기도했으며 서노회장 강진웅 목사(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가 '피조물의 사명'(사43: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정해진 목사(KPCA 직전총회장)가 축사와 축도를 했다. 〈박준호 기자〉

제4회 PPFF영화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공근우 감독이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PPFF영화제 대상에 "'The Amazing..."

공근우 감독 작품...12개 부문 16작품 상영

GMIT가 주관한 제4회 PPFF영화제가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AT&T센터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 1년 간 출품된 기독영화들을 상영했으며, 각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과 감독들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29일 저녁7시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John Sencio와 영화배우 Christine Barger의 사회로 열린 영화제는 12개 부문에 대해 시상했다. 이날 영예의 대상에는 TOC Creative 공근우 감독의 애니메이션 'The Amazing Invitation from Jesus Christ'가 차지했다. 공 감독은 "먼저 대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앞으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만들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앤드류 리 한 감독의 애니메이션 'Jonathan'이 여우주연상,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최우수 영화음악상 등 3개 부문을 차지했다.

한편 첫날 개막작품으로는 '스노우맨'과 '잃어버린 가방', 그리고 'What if...'가 상영됐으며 출품된 16개 작품이 상영됐다. 〈박준호 기자〉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아내고 있는 울림 합창단

'아마추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울림선교합창단 제 5회 연주회

울림선교합창단(총지휘 이우진) 제 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양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막을 올린 제 5회 연주회는 울림선교합창단의 실버, 드림, 파워, 산울림팀원 100여명의 남녀노소가 그동안 연습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맘껏 뽐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주회 중 예년과 같이 4곳에 선교비 지원과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특별 초청된 샌디이, 강천순의 '북과 장구의 만남'은 이날의 기쁨을 더욱 북돋았으며 '옹헤야'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연주회의 특징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 음악을 사랑해 모인 아마추어 단체로 오케스트라, 찬양율동 & 특별 초청된 Police Band 외에 피아노 올겐까지도 아마추어들이지만 함께 어울려 만들어진 하모니는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기에 충분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자 기자〉

PGM선교회가 주최한 제1회 선교신학포럼

"디아스포라" 등 4가지 핵심가치 발표

PGM 제1회 선교신학포럼 성료

세계전문인선교회(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 제 1회 선교신학포럼이 지난달 18일과 19일 양일간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사)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호성기 목사는 "모든 일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신학입니다. 그것은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3년간 PGM은 그 발전과 함께 신학적인 기초를 견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제1차 PGM 선교신학 포럼은 PGM의 핵심가치에 대하여 선교신학자들의 신학적 고찰과 가감 없는 외부적인 평가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고 잘된 부분은 더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PGM 선교회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라고 이번 신학포럼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영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온 80여 명의 신학자, 선교사, 선교하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했으며 4명의 학자들이 PGM의 4가지 핵심가치 "디아스포라, Here & Now, 전문인, 교회중심"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PGM의 첫번째 핵심가치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하여 발제자로 나선 위클리프선교회 디아스포라 선교담당 김성훈 선교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 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디아스포라가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디아스포라를 통한 세계복음화는 각별히 의도된 '하나님의 숨겨진 모략'(divine conspiracy)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PGM의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 시켜주었다.

두 번째 발제자 옥스퍼드대학의 마원석 박사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에 나타나는 선교명령이 PGM의 '지금 여기서'라는 두 번째 핵심가치의 기초가 된다"며, "우리가 보냄을 받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선교적 존재이며 따라서 선교는 필연적으로 Here & Now 선교로 귀결된다"고 정리했다.

한편 한국 사랑의교회 세계선교부 사무총장 유승관 박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는 일종의 평신도 운동이었다고 정의하고 세 번째 핵심가치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모든 선교의 일군은 사역의 전문인"이라는 개념이 매우 성서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주학원사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정민용 박사는 마태복음 16장 선교의 대위임령은 지역교회에 주어졌던 명령으로 '교회중심의 선교'라는 PGM의 마지막 핵심가치를 지지하며 교회의 본질회복과 파라처치의 위상과 기능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PGM 선교회는 연구된 자료를 한글과 영어로 재편집해 출판할 예정이며 내년 10월 두 번째 신학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자립 농촌에 염소 40마리 나눠줘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아이티 후원지역 방문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회장 이병홍 목사)는 지난달 17일부터 4일간 아이티 선교지역을 방문하고 염소 40마리를 나눠주고 돌아왔다.

회장 이병홍 목사와 서기 김연규 목사가 함께 한 이번 방문에는 동 재단후원으로 건축한 △디비비엘의 임마누엘미션중학교 3층 건물 완공예배, △200여 초중등학생들에게 비전강의와 함께 선물나누기, △지진피해로 생겨난 타바레의 고아원 지원, △마린의 핸디캡고아원 지원 △증축 피해교회 방문 등의 일정이 포함됐다.

38가정에 염소 40마리를 무상으로 나눠준 염소보내기운동은 현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염소는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 힘든 형편에 우유를 얻을 수 있고 1년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아이티 농촌에서 염소 한 마리의 값어치는 미국에서 소형 자동차 한 대에 버금가는 값으로 비교 된다.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는 그동안 캄보디아의 병원과 고아원과 교회지원, 러시아의 신학교와 농장과 교회지원, 그리고 중국연길의 빵공장 지원으로 인해 북한의 고아원지원, 베트남의 버려진 무국적 보트피플의 교회와 빈민층지원과 함께 아이티의 지진으로 인한 고아원과 학교와 교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이번 아이티방문으로 인해 '빈민층 살리기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염소보내기운동은 앞으로 농장 운영으로까지 확대해 농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후원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총장 이희선 목사(917-432-4370), 서기 김연규 목사(917-558-7435)에게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기윤실 '삶을 깨우는 호루라기' 출판기념회

"예수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일 하고 싶어"

로스앤젤레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기윤실 칼럼 '삶을 깨우는 호루라기' 출판기념회를 29일 오전 11시30분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대학교(학장 박문규 박사) 3층 예배실에서 열었다.

이날 서평을 맡은 박광철 목사(조이휄로십교회 담임)는 "기윤실의 호루라기가 친구의 충성된 권고 같은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철우 목사(미주기독교방송 사장)는 "기윤실이 영적파수꾼이 돼 호루라기와 나팔을 불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문규 학장은 "한국의 기독교는 과거 독립운동 등 세상을 이끌고 나갔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기독교는 세상의 비판을 받는 입장에 놓여있다. 신문에 연재된 조각글을 모아 엮은 이번 칼럼집을 통해 우리 각자가 서있는 곳에서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대 목사(평화의교회 담임)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그를 도운 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일 역시 제자들을 키운 것이었다. 따라서 리더들을 양성하는 것 이상으로 따르는 자들을 깨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기윤실 실무책임자인 유용석 장로는 "기윤실이 앞으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일들을 펼쳐나가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앞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재영 목사(LA기윤실 사무국장)가 사회를, 이창우 목사(LA기윤실 실행위원)가 기도, 이현준 목사(LA기윤실 실행위원)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창순 목사(LA기윤실 자문위원)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TEE 뉴욕세미나

뉴욕성경연구원(회장 김승희 목사)이 주최하는 TEE 뉴욕세미나가 11월 8일(화), 9일(수)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에벤에셀선교교회(담임 최창섭 목사)에서 열린다. 목회자(부부), 선교사, 소그룹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며 강사는 한순진 목사(KTEE디렉터), 임홍일 목사(KTEE연구위원). 등록비는 120달러(11월6일까지 100달러).

▲문의: (201)240-8142

뉴욕제일장로교회 임직식

뉴욕제일장로교회(담임 조성훈 목사)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주) 오후 5시 임직식을 갖는다. 임직자는 △장로장립: 김성우 김용탁 박균식 최상옥 △집사안수: 김전규 김재일 △권사취임: 강호자 김인순 김정인 박금아 신혜옥 안영순 최윤희.

▲문의: (718)899-3120

'사랑의 대화학교' 개강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사랑의 대화학교'가 오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30분까지 6회에 걸쳐 열린다. 장소는 뉴저지 소망장로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이며 수강료는 부부당 200달러, 개인 120달러.

▲문의: (201)242-4422

뉴욕목사회 제 40회기 정기총회 공고

후보등록 접수시작...3년간 출석해야 선거권 부여

뉴욕목사회(회장 김용익 목사)가 오는 21일(월) 제40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장 및 부회장선거 입후보 등록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입후보 자격은 △목사안수 10년 이상 △뉴욕내 담임목사 경력 5년 이상 △목사회 임실행위원 역임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로, 서류는 △후보등록원서 △소속교단추천서(증경회장추천서) △회원추천서 △증경회장 추천서 △이력서 △소견서 △목사안수증명서가 필요하다.

정기총회는 21일(월) 오전 10시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리며 최근 3년간 총회에 무단으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유원정 기자〉

뉴욕기독부부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자녀들과 함께한 가족찬양 박수갈채

뉴욕기독부부합창단 제 10회 정기연주회

뉴욕기독부부합창단(지휘 소유영·이사장 최종승) 제 10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30일 저녁 뉴욕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광희 목사의 기도 후 시작된 연주회는 찬송가 편곡, 은혜의 찬양, 여성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특별히 단원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찬양은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마지막 순서로 국악찬양도 있었다. 또 찬조로 피아노 트리오 첼로/김경수, 바이올린/정미연, 피아노/남궁연주가 출연했다.

뉴욕기독부부합창단은 '찬양선교'를 목적으로 2001년 8월 창단된 초교파적 합창단으로 단원들은 뉴욕일원 각 교회에서 지휘자, 솔리스트, 성가대원, 찬양 팀으로 헌신하고 있는 부부들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뉴욕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917)318-7030.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분열 위기...교회연합회 결성

뉴욕목사회는 회개문 발표, "지도자로서 부족 통감"

37회 정기총회를 마친 뉴욕교협이 분열위기에 처했다. 지난 24일 총회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25일 김명옥 목사 외 101명이 설립추진위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뉴욕지구한인교회연합회'(가칭)의 결성을 공포했다.

성명서는 "예배당 안으로 경찰들이 들어와 목사와 성도들을 감시하고 발언을 막는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며 △살벌한 분위기와 일방적 회의강행 △증경회장의 편파적 성명서 발표와 발언권 제한 △감사 사인 없는 37회 총회는 원천적 무효 △회장후보의 회비체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복음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히 막고 △WCC를 반대하며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에 입각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들이 연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목사회(회장 김용익 목사)는 지난 28일 '뉴욕교계의 화합을 위한 회개문'을 언론에 보냈다. 이 회개문은 "지난 24일 교협 정기총회가 경찰의 입회하에 진행됐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교계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겠기에 본 목사회의 전 회원은 임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다음과 같이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그 주 내용은 △이사회 및 평신도 총대들을 실족시킨 것과 교계 분란으로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전도의 길을 막은 것 △자의적인 법해석을 주장하며 개인의 의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지 못한 것 △교협 임원단들의 권위에 대한 위계질서를 준수하지 못한 것과 회원들의 발언을 존중하고 수렴하지 못한 것 △사랑을 배제한 비판적인 생각과 말들로 화합을 이루지 못했던 것 등이다.

또한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통감한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뉴욕교계가 하나로 연합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동부동부개혁신학교 22차 총동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장신총동문회 새회장에 손한권 목사

제22차 정기총회, 부회장 임재홍 목사, 최미하 전도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총동문회(회장 김진화 목사) 신임 회장에 손한권 목사, 부회장에 임재홍 목사, 최미하 전도사가 각각 선출됐다.

지난 31일 퀸즈장로교회 양순관에서 열린 2011년도 제 22차 정기총회는 1부 예배, 2부 회무로 진행됐다. 예배는 부회장 손한권 목사 사회로 기도 서성희 전도사(부회장), 성경봉독 김창열 목사(서기), 설교 김진화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전임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진화 목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계3:7-13)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초대교회 중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교회가 주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교회가 된 이유는 구원자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과 신앙이 투철했기 때문"이라며 "이 시대에 혼합주의, WCC 등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회무는 회순에 따라 진행됐으며 회장에 부회장 손한권 목사(예사랑교회 담임)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부회장 임재홍 목사(예닮교회 담임)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21명중 20표, 여자부회장은 최미하 전도사(리빙스톤교회 시무)가 17표를 얻어 선출됐다.

손한권 신임회장은 "학장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용을 잃지 않는 것이 목회 좌우명인데 동문회도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아시안소수민족교협과 동문들의 사역을 접목 소개하며 후원하고 동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개혁신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년간 총동문의 밤, 여성동문회의 밤, 사역세미나, 성경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체육대회, 정기기도회 등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감사, 찬양, 바울의 회심" 주제로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창단10주년 기념사은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임순자·지휘 양재원)이 지난 30일 저녁 창단 10주년 기념사은 연주회 "감사의 축제"를 가졌다.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주회는 1부 음악회, 2부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문석호 목사의 기도 후 시작된 음악회는 1부 감사, 2부 찬양, 3부 바울의 회심 등의 주제로 3부는 이상윤 작사, 한태근 작곡의 칸타타로 진행됐다. 또 테너 변진환, 우리엘남성중창단이 특별출연했다.

이날 기념식은 이은순 10주년기념사업위원장 사회로 김홍석 목사의 식사기도 후 진행돼 단목 방지각 목사, 문석호 목사, 안창의 목사, 신학연 한국일보 사장, 박용기 KCTV 사장, 제미장의사 등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박지은 외 4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또 1대 단장 홍신순 2대 최정숙 3대 김연숙 4대 이은숙 전임 단장들에게 공로상을 증정했다. 이외에 10년 근속 김희겸 유필봉 이은숙 권사와 양재원 교수에게도 공로상을 수여했다. 모든 행사는 안창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창단10주년 기념연주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KAPC뉴욕노회영성수련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목회경험과 받은 하나님 은혜 나눠

KAPC뉴욕노회영성수련회 주강사 장영춘 천성덕 이정현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이원호 목사) 영성수련회가 교육부 주최로 지난 25일과 26일에 걸쳐 포코노 하워드 존슨에서 열렸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모인 영성수련회는 장영춘 목사, 천성덕 목사, 이정현 목사를 주강사로 목회 경험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노회소속 목사회원들과 사모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련회 개회예배는 이원호 목사의 환영 인사로 시작돼 장영춘 목사가 설교했다. 장 목사는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의 핵심원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감동적인 사랑을 드림에 있다"고 증거했다. 이어서 제1강의는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담임)가 "말씀 안의 치유사역"에 대해 강의를 했다.

저녁 제2강의는 천성덕 목사(뱅쿠버 빌라델비아장로교회 원로)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 제목으로 강의했다. 제3강의는 장영춘 목사가 '한국장로교 역사와 그 미래'에 대해 강의했다. 장 목사는 강의를 통해 한국교회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의 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26일 둘째 날은 천성덕 목사가 자신의 목회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나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으며 폐회예배는 이정현 목사가 "목회자의 구할 것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참석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목회현장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을 섬기게 하신 비전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리: 유원정 기자〉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요.

상담 환영!!!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OKC에서 열린 창립35주년 기념음악회

오렌지한인교회 설립35주년 기념음악회 성황

오렌지한인교회(이하 OKC 담임 김윤진 목사)는 교회설립35주년 기념음악회를 지난달 30일 저녁 7시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윤진 목사의 인사말과 배응구 장로(본 교회 할렐루야성가대 대장)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1부 연합성가대 합창, 바리톤 장상근, 앨토 정희숙, 소프라노 황혜경, 테너 전승철의 독창, 소노로스 싱어즈의 남성중창으로 이어졌다. 이어 2부 순서에는 연합성가대가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OKC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불렀다.

이날 행사는 본 교회를 거쳐 간 교인들을 초청한 홈커밍데이 성격으로 진행돼 OKC의 35주년을 더욱 뜻깊게 했다.

이날 김윤진 목사는 "35년 전 파운틴벨리에서 설립된 OKC는 지난 80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곳으로 이전했다. 이제 OKC는 '복음의 다리'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 나갈 것"이라 말하고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쉼과 안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중보기도세미나에서 다니엘 뉴먼 교수가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ANC온누리교회 '응답받는 기도' 세미나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주제로 26일(수) 저녁 7시45분 중보기도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교회 중보기도사역팀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다니엘뉴먼 교수(아주사퍼시픽대학교)가 강사로 초청돼 열정적으로 강의를 인도했다.

본 교회 찬양팀(인도 승광철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세미나에서 다니엘뉴먼 교수는 "기도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역을 현지에 가지 않고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갖는 데는 인색하다"고 지적하며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응답받는 기도는 그리스 도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이다. 따라서 응답받기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에서 온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다. 따라서 말씀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단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말씀생활과 기도생활이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귀한 기도는 영생에 대한 기도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날 모인 모두가 불신자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합심기도를 한 후 승광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제30회 남가주 성가 대합창제
성가대·합창단 10팀 출연 11월6일 남가주사랑의교회서

남가주교회음악협회(회장 황성삼)는 제30회 남가주 성가 대합창제를 11월6일(일) 오후 7시 남가주사랑의교회(1111 N. Brookhurst St., Anaheim)에서 '선택된 노래하는 자'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본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이번 합창제는 지난 30년의 전통적인 성가합창제의 틀을 벗어나 찬양예배의 정신과 음악회의 형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합창제로 꾸며지게 된다. 이번 성가 대합창제는 교회는 늘푸른선교교회(최성은 목사), 브리지교회(장세정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큰빛교회(조헌영 목사), 유니온교회(문병용 목사), ANC 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등 8개 교회 성가대와 로스앤젤레스 챔버 콰이어(단장 오승일), 정신동문 코러스(단장 정문자) 등 2개 합창단이 출연한다.

▲ 문의: 회장 황성삼 (714)393-1439, 총무 황현정 (310)923-1064

라이트하우스 워십

라이트하우스워십(대표 배송희 목사)은 다음세대를 위한 창의적 경배와 찬양의 밤을 11월 5일(토) 오후 7시 네이홀든 아트센터에서 'Praise Quake'라는 주제로, 11월12일(토) 오후 6시 엠팍4극장에서 'Fantastic, Fabulous, Fascinating!'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경배와 찬양의 밤은 배송희 목사와 영화배우이자 힙합아티스트 양동근 씨가 출연한다.

▲문의: 권태준 (310)359-2125, 박소라 (310)806-3510

남가주 새언약교회 창립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 새언약교회 설립감사예배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 설립예배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은혜가운데 마쳤다.

미주예성총회 서부지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강윤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김은광 목사의 기도와 오직예수초대교회 찬양팀, 성결대학교동문회 그리고 강정윤 목사의 특송, 지방회장인 최한오 목사가 '적당하게 주시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최한오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알맞게 주신다"고 말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이 세우신 남가주 새언약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 교회 담임 강양규 목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다가가며 또 하나의 이민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213)434-1083

〈정리: 박준호 기자〉

아이엠교회 설립2주년 기념예배 & 콘서트

아이엠교회(담임 정종원 목사 1932 10th Ave., Los Angeles, CA)는 설립2주년 기념 예배 & 콘서트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정종원 목사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과 자리를 잃어버렸다. 아이엠교회는 조그만 귀퉁이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음악 하는 자는 조율이 잘못되었으면 음이 방해되기에 음악을 잘할 수 없다. 세상의 소리가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율된 자들이 많이 나타나 세상에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30분에는 설립2주년 감사예배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나성제일교회에서 열린 명예장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목회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나성제일교회 장로 집사 권사 임직예배

나성제일교회(담임 김광삼 목사)는 장로장립, 명예장로 추대, 집사안수, 권사 취임예배를 지난달 30일 오후 3시에 개최했다.

김광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가주노회 중부시찰 서기 김요섭 목사(남가주리디머교회)가 기도를, 가주노회 증경노회장 임진태 목사(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가 '순종의 삶'(삼하 19: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임 목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내 계획과 뜻과 다르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며 순종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약의 시간을 가졌는데 '장로 장립자 및 명예장로에게', '안수집사에게', '취임권사에게', '교우들에게'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안수기도, 악수례, 공포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가주노회 부서기 이준우 목사(밸리한인커뮤니티교회)가 권면을, 유상수 목사(은혜와평강교회)가 축사를 했으며 임직자 대표 성재성 장로가 답가를, 안정화 집사 외 중창단이 축가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박용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파사데나장로교회에서 열린 말씀축제에서 정수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파사데나장로교회 설립10주년기념 말씀축제

파사데나장로교회(담임 성현경 목사)는 설립10주년기념 말씀축제를 'reThink Church'라는 주제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정수일 목사(샌디에고 한빛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본 교회 블레싱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성현경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집회는 한성수 장로가 회중기도를 윤정원 자매가 특송을 했다. 이어 정수일 목사가 "화평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약3:13-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이민교회의 아픔은 20년 이상 건강하게 목회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며 원로 목사를 모시고 갈등 없이 목회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라며 "건강한 교회는 교회라는 몸 안에서 교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7년의 역사를 가진 한빛교회에 4대 목사로 부임해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와 화평을 이루며 교회의 아픔이 치유되며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역시 화평을 이룰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파사데나장로교회 역시 화평을 이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말씀축제는 정수일 목사가 둘째 날 오전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요13:36-38), 저녁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요13:12-17), 주일예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고전15:50-58)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를 인도했다.

한편 주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 설립10주년 감사예배는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한국 핸드폰빌려가세요 702.812.4770 Kim Wray
눈, 코, 귀, 입이 열어서 감사하고 손에는 전화기가 있으니 편사해진!
$3.00 a day $21.00/wk | 39¢ | 공짜!
■ 가격은 인천공항의 50%수준
■ 고급 핸드폰 제공
■ 영어 - 스페인 할인
■ 미국 어디나 무료 배달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www.lifebook.co.kr
로스엔젤레스 지사 TEL. 800.347.7057
워싱턴DC 지사 TEL. 800.228.2928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8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전 세계에는 2만 여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아시아권에 1만3천869명, 유럽에 1천988명, 아메리카권에 3천124명, 아프리카 중동권에 1천907명 그리고 오세아니아 태평양권에 713명이 파송돼 있습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세계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아울러 신문 보내기로 문서선교에 동참하시도록 애독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미주크리스천신문 선물'은 일년 내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 소		
전 화	팩스:	
이메일	@	
기 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대표회장 '2년 단임제'·'순번제 폐지'

한기총 실행위 개정안 상정...11월 임시총회서 결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지난 7월 7일 특별총회에서 결정한 정관 중 핵심 조항인 대표회장 임기제 등을 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총은 2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제22회 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대표회장 2년 단임제 추진, 순번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과 개정운영세칙, 개정 선거관리규정 등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11월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회 구성은 직전 대표회장과 명예회장, 대표회장, 공동회장 35인 이내, 부회장 40인 이내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임위원회도 임원회 결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기존 4개 분야 5개 위원회를 18개 위원회로 변경했다.

대표회장 임기는 현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이 됐다. 후보 자격도 기존의 '회원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나,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는 1인으로 한한다'로 각각 변경했다.

현 대표회장 후보순번제는 모두 삭제됐다.

개정안 통과에 앞서 의견 충돌도 나왔다. 특히 '7·7총회' 개정안을 변경 시에는 한기총에 대한 행정보류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경우 반발했다. 통합 측 실행위원들은 '순번제 변경은 반대한다는 것이 교단 입장', '원하든 원치 않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현 정관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등의 의견을 표출했다. 박위근 예장 통합 총회장은 "순번제 개정 반대는 작은 교단에서도 대표회장을 배출하는 게 연합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관 개정 안건 논의에 앞서 한기총 정관개정위원회는 유인물을 통해 "직무대행이 만든 몸에 맞지 않는 짝퉁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기에 자생력 있는 한기총의 위상을 되찾고자 정관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 대신 '20만전도운동' 결산

28일 해단식...2000교회 40만성도, 2년간 8만명 전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대신 총회(총회장 강경원 목사)가 20만전도운동을 통해 약 8만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박재열 전 총회장은 "예장대신 2000교회 40만 성도가 지난 2년간 약 8만 여명을 전도했다"며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똘똘 뭉쳐 협력을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열매가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예장대신은 2년 전 이 전도운동 선포와 함께 7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각 지역이나 노회별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 작은 교회 100곳을 선정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집중 지원을 하고, 농·어촌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계획 등을 수립해 진행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비록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교세에 비하면 큰 성과라는 게 자체 판단이다.

강경원 총회장은 설교에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20만을 넘어 교단이 목표로 하는 '500만 신도 운동'도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총회장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함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걸다보면 목표는 저절로 채워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강 총회장은 또 "전도는 기획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충성을 다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전도운동 시상식도 열렸다. 전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실을 거둔 교회와 노회, 시찰 등이 대상이 됐다. 경기도 안양의 평강교회, 서울 주님의교회, 예전교회, 성대교회 등이다. 노회는 서울동노회, 시찰은 안산노회 제1시찰이 각각 선정됐다.

'신천지 출입금지!' 문구 부착교회 증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세력의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한 교회가 부쩍 늘고 있다. 경고문구를 부착하면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형법에 따라 신천지 세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건일 서울 북아현교회 목사는 "2개월 전 신천지 세력이 대담하게도 교회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담임목사 면담을 요청하고 포교 CD와 책자를 건넸다"면서 "최근 이사 온 교인에게도 찾아가 포교활동을 펼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신천지의 포교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면서 "경고 문구를 붙여 놓으면 교인들도 경계심을 갖게 되며, 그쪽 사람들도 함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플래카드를 내건 교회도 있다. 서울 미아동 강북제일교회는 '신천지 이단세력의 교회출입을 금지하며 교회 무단 출입 및 교인들에게 유인물 불법 배포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문구를 교회 전면에 내걸었다.

"새 100년의 교육 핵심콘텐츠는 역시 성경"

예장합동 주최 '2012년 총회교육주제 심포지엄'

교회학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전' '통찰' '가치' '창의' 등의 키워드가 제시됐다.

미래학자인 최윤식(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은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교육위원회가 주최한 '2012년 총회교육주제 심포지엄'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회교육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바꿔 비전과 인생목적을 명확히 제시한다면 향후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래는 암기 대신 창의·통찰·사고력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기술 발전에 따른 각박함으로 인해 가치교육과 체험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에 성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교회학교 교재를 디지털 공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희자(총신대)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란 주제발표에서 "웹 2.0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교회교육의 개념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과를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래학자와 교수, 목회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20-30년 뒤 직면할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이들은 미래를 먼저 대비할수록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교단과 노회, 교회가 힘을 합쳐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년간 고소 고발 일삼은 교인제적은 적법"

[미션라이프] 7년여 동안 고소·고발을 일삼아 온 교인에 대한 제적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인의 권리와 직분, 직책의 취지를 대법원이 규정한 것으로 향후 선고되는 교회 분쟁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신길1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신길교회(이신웅 목사) K모 장로 외 4인이 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제명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27일 신길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제적 결의는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위 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인 선교사 첫 전용묘원 금산에 개관

467기 봉안당...외부 추모시설은 외국인 선교사용

순직 한국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전용 묘원이 국내 처음으로 충남 금산에 세워졌다. 한국해외선교회(GMF·대표 김동화)는 26일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하늘정원추모공원(추모공원·대표 민완기) 기독교 전용관 내에 선교사 전용 묘원을 개관하고 본격 성역화하기로 했다.

선교사 전용 묘원은 서대산 700m 부근 16만5000㎡(5만평)에 조성된 기독교 전용관 내 467기의 봉안당을 비롯해 예배실과 외부 추모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봉안당에는 해외 선교활동 중 순직한 한국 선교사들이 안장되며 외부 추모시설에는 외국인 선교사를 위한 묘지도 조성된다.

GMF 김동화 대표는 "안장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소속 단체 파송 선교사 증명을 거치면 무상으로 가능하다"며 "국내에서 사역하다 순직한 외국인 선교사도 안장 또는 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교사 전용 묘원 개관은 해외선교의 꿈을 키워오던 익명의 기업인과 추모공원의 후원, GMF, KWMA의 공동 노력으로 이뤄졌다. 한 기업인은 지난 8월 말 추모공원 일부인 467기의 봉안당을 선교사 전용 묘원으로 GMF에 증여했고 GMF는 이를 한국 선교사 전체를 위해 내놓은 것이다.

김 대표는 "선교사 전용 묘원 관리와 사업은 랜드앤드카우㈜가 맡게 되며 이를 위해 GMF, KWMA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히고 "선교사 전용 묘원은 한국 선교사들의 희생과 선교 정신을 알리는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는 1913년 중국 산둥성에 첫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지금은 2만3000여명의 선교사가 활동 중이다. 하지만 사망한 선교사 안장이나 추모사업 등은 미미한 게 사실이었다. 선교지에서 순직할 경우 현지에 묻히거나 화장돼 한국에 안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추모 형태도 주로 파송교회와 단체, 가족 단위별로 이뤄졌다.

내년은 한국교회 해외 선교사 파송을 결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번 선교사 전용 묘원 개관은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선교계의 시각이다. 전용 묘원의 경우 묘지뿐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의 다양한 선교활동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교 교육현장 기능도 겸하게 된다.

교수 10명 중 9명 해외파… 'SKY' 출신 상당수

총신·장신·감신·서울신대 등 주요 신학대 분석

국내 주요 신학대 교수 10명 중 9명 이상은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10명 중 4-5명은 신학대가 아닌 4년제 일반대학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신대학교(총신대)와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 서울신학대학교(서울신대) 등 각 교단의 대표 신학교 교수 168명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157명(93.5%)이 해외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중 미국 유학파(71명)가 가장 많았다.

학교별로 보면 총신대는 신학 관련 교수 49명 중 48명이, 장신대는 45명 중 43명이 해외파였다. 감신대는 33명 중 32명, 서울신대는 41명 중 34명이 그랬다. 서울신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국내파 교수들은 모두 재직 중인 학교의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 교수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해외 신학교는 총신대의 경우

총신-웨스트민스터, 장신-프린스턴 출신 가장 많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트리니티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는 5명이었는데 모두 선교 전공이었다.

장신대는 미국 프린스턴(Princeton) 신학교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튀빙겐(Tubingen) 신학교와 미국 풀러 신학교 출신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감신대는 미국 드루(Drew) 신학교와 에모리(Emory) 신학교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신대 역시 미국 드루(Drew) 신학교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사 학위의 경우,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이 상당수(82명)였다. 이들 중에는 서울대(16명)와 연세대(3명), 고려대(6명) 등 고학력자들은 물론, 화학과 공학 등 다양한 전공 출신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총신대와 장신대는 해당 학교 학부 출신 교수들보다 일반대학 학부 출신 교수들이 더 많았지만 감신대와 서울신대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이다. 총신대는 총신대 학부를 나온 교수가 18명이었고 일반대학 학부를 나온 교수가 29명이었다. 장신대도 이 비율이 10:34로 일반대학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감신대는 감신대 학부 출신 교수가 25명으로 7명인 일반대학 학부 출신 교수 숫자를 크게 앞질렀다. 서울신대 역시 26:12로 서울신대 학부를 나온 교수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의 숫자는 장신대가 11명(서울대 9, 연세대1, 고려대 1), 총신대가 9명(서울대 4, 연세대 1, 고려대 4), 서울신대가 4명(서울대 3, 연세대 1), 감신대 1명(고려대 1) 순이었다.

선교소식

국제사회에 나다르카니 목사 구명 촉구

이란에서 사형의 위협에 놓여 있는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의 구명을 위해서 계속적인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로 하고 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지난 2009년 강제 이슬람 교육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배교죄와 무슬림 개종 시도로 혐의가 바뀌었고 이로 인해 길란(Gilan)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나다르카니 목사는 2010년 대법원에 항소했고 사건은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아온 뒤 결국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메네이는 이란 사법권을 쥐고 있는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외신들은 11월 초까지는 나다르카니 목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보도했다.

미국법과정의센터(ACLJ) 조던 시컬로우 총무는 "이란 법원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재판 절차를 연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나다르카니 목사가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나다르카니 목사를 위해 할 일은 기도 외에도"종교 지도자들과 정부에 이란이 종교박해를 멈추게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다르카니 목사의 사건이 쉼 없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에 따르면 수감된 나다르카니에 대한 개종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간수들과 당국자들은 그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슬람 서적을 강제로 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CSW는 이란에 나다르카니 목사와 같은 이유로 수감된 기독교인들이 더 있다며, "이란 법원과 당국자들이 기독교 활동을 국가보안에 반대되는 활동으로 규정짓는 성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감옥에서는 다른 기독교인 수감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인다며 일부를 고문으로 악명 높은 감옥으로 보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CSW 스튜어트 윈저 특별대사는 "우리는 이란에서의 증가하는 기독교 박해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태국남부, 이슬람주의자들로 혼란 야기

불교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태국의 남부 3개 주(州)에서는 승려들이 매일 아침 무장한 군인들의 경호를 받으려 시주를 받으러 다닌다. 하지만 이러한 경호에도 불구에도 승려들은 분리 독립을 원하는 남부의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에 의해 공격을 받곤 한다.

지난 2011년 8월 23일에도 파타니(Pattani) 주에서 승려들이 아침 시주 활동을 끝내고 절로 돌아가는 길에 폭탄이 터져 1명의 승려와 9명의 군인 그리고 3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15명의 군인들이 승려들을 호위하고 있었지만 노점상 손수레에 숨겨 있던 폭탄이 원격 조정에 의해 터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같은 날 인근 얄라(Yala) 주에서도 폭탄이 터져 2명의 군인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다음날에도 5명의 군인이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무슬림들의 분리 독립 투쟁으로 지금까지 4,700명이 목숨을 잃고 9,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테러사건 대부분은 파타니 주와 얄라 주 그리고 나라티왓(Narathiwat) 주(州)에서 발생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와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남부의 3개 주에는 전체 인구 170만 명 중에 95%가 말레이(Malay)계(界) 무슬림이다.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이다.

태국의 정치인들과 군부 지도자들은 테러를 일으키는 무슬림들이 혼란 상태를 만들어 마약과 무기 그리고 상품들을 밀거래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반군들은 불교도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독립에 반대하는 무슬림들에게도 폭력을 휘두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반군들 중에 진심으로 분리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은 20% 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들은 마약을 거래하거나 물건을 밀거래하는 이들이라고 남부의 주에서 군사 작전을 관할하는 태국 군 사령관 탐마사로라트(Udomchai Thammasarorat) 장군은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남부 반군들이 그들의 지역에 이슬람 법을 도입하고 지역의 자원과 상품들을 독점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출되어 공개된 주(駐) 태국 미국 대사관의 비밀 보고서에 의하면, 태국 남부 반군들은 지역에 성행하는 부패에 절망하는 주민들의 심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2009년 당시 미국 정부의 태국 대사를 역임했던 에릭 존(Eric John) 대사는 역사적으로 태국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과 사법 당국이 이 지역 문제 원인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패하고 위압적인 경찰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법 제도가 태국 중앙 정부에 대한 말레이계 무슬림 주민들의 적개심과 문제의 심각성을 키워왔는데, 이러한 남부의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법은 경찰과 사법 제도의 개혁이라고 존 대사는 덧붙였다.

남부의 반군들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숨어서 활동하고 있다. 반군들은 지도자도 없고, 대변인도 없으며, 테러 사건을 일으켜도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들은 때때로 응징을 다짐하는 유인물만 살포할 뿐이다.

반군들은 폭탄을 터뜨리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고, 칼로 공격하기도 하고, 목을 베기도 하는데, 반군의 공격 대상은 정부 관리와 교사, 불교 승려뿐만 아니라 온건 무슬림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이들이다.

태국 정부는 반군들이 살인과 고문, 납치, 감금 등을 자행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제 사회에 고발하고 있다.

선교지 편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화요일의 징크스! 그것은 이상하게도 비나 눈이 화요일에 주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지하에서 하는데, 그 날만 광장이라서 더 느끼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화요일, 가을비가 다행히 보슬비로 내리네요. 모스크바 광장에, 이제 헝가리식 이름 "실 카르만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다페스트 거리의 교회" 예배가 있은 후 급식을 하고 저는 이발을 하는데 추워서 썼던 모자에 눌려 머리카락이 엉망이네요. 그런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니, 이건 뭐,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스프레이입니다. "그 다음 사람, 오세요!" 척척 이발을 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합니다. "워우! 새사람이 됐네."

지난 6월 18일 우리 목사님, 김흥근 선교사가 뛰다가 쓰러져 앰블런스에 실려갔지요. 5월 17일 MRI를 찍었는데 스트록(Stroke)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대요. 왜 시신경이 해를 입었는데 그때 알겠되었고, 고혈압 주의를 받았습니다. 운동한다고 5km를 거의 다 뛰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저도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지만 우리 보험은 교통사고 외에는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사랑의교회" 중고등부팀과 단기선교를 겨우 끝내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할 정도였지만, 우리 이웃의 홈닥터를 통해 혈압 약을 먹으면서... 저는 다음 단기선교팀이 있어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호산나 교회" 단기선교팀이 목사님의 인솔 하에 왔었는데, 올해는 여자 전도사님의 인솔 하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조정(arrange)해 놓으신 걸 보면... 더구나 저희 연령층인 중년이 대부분이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음식 초대"를 해서 이웃을 불렀지요.

막상 초대해놓고 보니, 우리 옆집 이바와 그다음 이웃 집 일디꼬는 사이가 안 좋더군요. 울타리를 놓고 개 때문에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몰랐지요. 그런데 푸짐하고 풍성한 한국 음식-김밥, 잡채, 불고기, 김치...-을 놓고 웃지 않을 수 없지요. 더구나, 동역자인 진성국 선교사님 내외분이 떡도 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네가 서로 정말 이웃사촌이 됐습니다.

단기선교팀이 떠난 후, 저도 남편을 간호하러 한국으로 갔습니다. 김 선교사는 암 정밀 검사까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하였고, 많은 믿음의 의사 선생님들이 봐주셨습니다. 저도 건강 체크를 해주셨는데, 십이지궤양과 위염이 있다며 8주약을 지어주네요.

부산 친정에 간 김에 호산나교회 단기선교팀을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 정말 기쁩니다." 다들 반가와했습니다. 그때 왔던 고등학생 진형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왔네요. 대학생 재영이는 자전거를 타고 먼 길 왔구요. "저 이번에 영어 시험 7등 했어요." 공부에 마음 붙이지 못했던 진형이가 이제 믿음을 갖고 변했다며, 모두 기뻐합니다.

저희 부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명절을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 보내고, 남편은 두 달 만에, 저는 한 달 만에 저희 선교지 헝가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다음날, 아니 다섯 시간 후에 또 공항을 나가 단기선교팀을 맞이했지만 말입니다.

안경 쓰듯이, 저희도 약 먹으며, 하나님 주신 미션 오늘도 감당합니다. 기도해주시고, 물질로, 또는 직접 단기선교로 오셔서, 동역해주신 모든 분들은 모두모두 하나님이 직접 뿌려주신 은혜의 스프레이, 단비 입니다. 할렐루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신명기 32:2)

깊이 감사드리며...

헝가리 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www.gospelmall.com
미주 최대 인터넷 샤핑몰
▶ 5만 여권 이상의 도서 데이타베이스, 교회 모든 용품들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 매주 2회 항공 직 수입
일반서적 용품 기독교에 관한 모든것
▶ 신속하고 정확하게 핸들
▶ 현금처럼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포인트 제도.
▶ Sale에 올려있지 않은 서적 주문도 가능
▶ 구하기 힘든 서적도 최대한 구해 드림.
E-mail : gospelmall@hotmail.com으로 출판사와 책제목을 보내주세요
▶ 사용시 질문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1.800.404.1171
교회도서부 설치전문
매주 2회씩 기독교 일반서적 항공 직수입

2012년 달력·다이어리
www.buycalendar.com 에서 더 많은 달력과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미주판 국경일도 준비됨
교회이름 등 단체 이름 새겨드립니다
다이어리 맞춤제작
최저가격 보장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낱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멀티프로젝터

Product	LIST	HM PRICE
2300 ANSI LUMENS 2000:1	$1,095.00	$699.99
2600 ANSI LUMENS 2200:1	$1,295.00	$899.99
3000 ANSI LUMENS 2000:1	$1,795.00	$1,199.99
3300 ANSI LUMENS 600:1	$3,195.00	$2,399.99
5200 ANSI LUMENS 1200:1	$6,995.00	$5,299.00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쟁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미가엘 반주기
영상 성경 찬양 연주기 미가엘
터치스크린 방식
영상프로그램 쉽게 볼음
더 부드럽고 아름다워진 연주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일합니다.
바이블 아울렛 (도매부)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이중통역기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멀티프로젝터 샤프 2600 ANSI LUMENS
밝기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헌금위원, 드레스·청장앙복
미 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엘라성구사
아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샤핑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m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조명 (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까운, 달력, 다이어리

크리스천 가정상담

염인숙 전도사(기독교상담소 소장)

왕따 시키는 세상 문화 두려워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배를 너무 좋아하는 십대입니다. 찬양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선교지 소식을 들으면 공부하고 있는 일이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학교에 가도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저는 빨리 신학교도 그리고 선교지에도 가고 싶은데 부모님도 저를 반대하고 친구들도 함께 어울릴 때는 저를 안 끼워주는 것 같아서 외롭고 슬픕니다. 저는 미디어를 통한 세상적 영상문화에 관심이 많이 가지 않는데 TV프로그램, 비디오, 연예인들과 컴퓨터 게임들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도 잘 못해서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믿고 쫓아가는 문화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함께 어울리기도 또 나 혼자 배척하기도 혼돈스럽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어디까지 그들과 함께 이해하고 즐겨야 하나요?

두려움 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도움 구해야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기술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영향력도 심각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미디어는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라는 장점도 가져왔지만 한편 거룩하게 지켜야할 영혼이 세상문화에 사냥당하며 세대의 흐름과 분별력을 약화시킴으로 영적 건강에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영상문화와 관련된 음악, 드라마, 가요, 연예인, 음란물에 의한 영향일 것입니다. 이의 전파력은 이제 안방을 넘어 책상 및 손앞까지 와서 이젠 실제적으로 세상문화의 파장에 눈을 가리거나 숨을 수 없는 시대에 처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중의 인기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세상문화와의 동행은 이와 역행하는 기독교 문화를 배척하고 대중적인 삶과 양립하기 힘든 세상 문화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은 뒤떨어지고 부끄러운 태도로 인식되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늘어가는 청소년 갈등을 종종 접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실제적으로 청소년기에 성장을 향한 폭넓은 대화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가 되어 현실적으로 도전을 주는 슬픈 일을 접합니다.

현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은 영상 문화를 통해서 폭력과 음란함, 극도의 물질지향주의, 사회의 어두운 측면, 건강과 인생을 파괴하는 마약 등에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사회 및 관계적인 갈등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아직 세계관 및 가치관이 이성적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향으로 가치관의 혼란, 부적절한 행동, 심리적인 불안정, 세상문화의 무조건적 흡수 등으로 영향을 미쳐서 바른 가치관으로 성숙한 삶의 기초를 세워나가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도 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와 관련한 모든 영상 매체가 나쁜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영화나 동영상 등의 전달 채널이 선택을 넘어서 무차별적으로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와 같은 급속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는 건전한 내용이나 가치 또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갖기도 하는데 이를 잘 분별하여 좋은 기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한편, 현대 사회의 개방적인 특징은 탁월하고 작품성이 높은 창작물을 많이 양산하며 개인의 독특한 창의성과 함께 한층 가까워진 글로벌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세계적으로 문화와 음악, 정서 등을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하며 습득하게도 하면서 새롭고 유익한 기회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의 부적절한 세상문화에의 노출은 좋은 문화를 통한 배움이 있기 전에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침투하여 편협적으로 발전되어 영적 타락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삶의 주의를 요하게 합니다.

현대를 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할 것을 도전합니다. 혼자서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부모나 좋은 선배 또는 영적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 감정,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될 만한 영상물이나 세상문화와의 동행은 미리 절제하여 빠져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피해를 경험한 뒤에 이를 그만두려는 노력이 위험한 것처럼 유혹의 초기에 주의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교회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유혹이 오는 순간마다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생에서 가장 집중적이고도 양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시기는 청소년 및 청년의 시기입니다. 일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통한 긴 안목으로 시기별 우선순위를 세워 미래의 온전한 성숙을 바라보며 학교생활에 충실하면서 독서와 건전한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 등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새부터 버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인본주의가 기초가 된 세상의 문화 특히 영상과 관련한 건전하지 않은 미디어 문화의 수용을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과 훈련으로 유익한 삶을 선택할 것을 권면합니다.

위의 의뢰자는 대중적인 특성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의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을 기억하여 두려움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같은 피드백(Feedback) 등이 영적 성장을 제약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신속한 답을 찾아 믿음의 잣대대로 행동하고 친구관계에서 혼돈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213) 381-7554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고요한 부흥 (왕하18:17-37) 찬181장

기독교신앙은 운동이 아니고 겨자씨 같은 생명의 흐름입니다. 인위적인 인간 지혜에서 나온 운동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흐름은 반드시 세워지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위기를 당할 때 히스기야는 조용한 자세를 취했습니다(36). 온갖 수모를 당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팔을 불어야 할 때가 있지만 다른 때는 잠잠한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 회개하는 기회입니다. 둘째,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잠잠함은 아버지와의 산 교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털깎는 자 앞에 선 어린양 같은 침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한 부흥을 배웁시다.

화 요시야의 개혁 (왕하23:1-20) 찬241장

2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라고 말 한 한 구절이 위대한 개혁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째, 개혁의 시작-약관 26세의 요시야가 성전에 올라 모든 이들을 불러 율법을 낭독하고 그대로 시행할 것을 선포할 때 모든 이가 동의함이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성경의 권위가 제자리를 차지할 때 개혁은 시작됩니다. 둘째, 개혁의 실행-성전 속에 자리 잡은 우상들과 산당을 모두 제하고 남창의 집을 무너뜨리고 모든 도구를 불사르고 금하고 징계했습니다. 그 영향은 앗수르에 잡혀간 북이스라엘의 벧엘제단에까지 가해졌습니다. 이것은 미스바각성운동, 에스라의 수문앞 광장의 개혁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시대에 급선무입니다.

수 개혁의 원천 (왕하23:1-25) 찬401장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는 성령의 평가는 참 개혁을 알게 합니다(23:25). 첫째, 그것은 구속사에 있어서 우뚝 솟은 산맥과 같습니다. 므낫세(55년)와 아몬(2년)의 55년 통치기간 철저한 혼합주의 형태로 떨어진 언약신앙은 그 뿌리를 찾기조차 힘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사람의 마음의 개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한 사람의 마음의 부흥에서 시작됐습니다. 힐기야가 찾은 율법을 읽을 때 옷을 찢으며 통곡한 요시야가 26세 때 일이었습니다(22:3). 율법책 발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은 실천적 결단이 부흥의 핵심입니다.

목 에스라의 개혁 (스1:1-14) 찬276장

바벨론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는 구약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최종 개혁의 인물이었습니다. 새 역사를 일으킨 그의 개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 성령이 시작하셨습니다(1).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예언이 이방 왕을 통해 갑자기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이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됩니다. 둘째, 성령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2-6). 이 중 대한 일에 하나님은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려는 꿈을 가진 에스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셋째, 성전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수고에 헌신했습니다(7-11). 성전재건이나 사회제도개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의, 인, 신(마23:2)이 채워진 공동체를 이루려고 힘쓴 것은 그림자 시대일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금 성도의 결단 (룻1:15-17) 찬455장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죄사함에서 시작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취됩니다. 이 부분은 진정한 구원의 연합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위치의 연합-어머니가 가는데까지 가고 멈추는데 멈추고 묻히는 곳에 묻히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는 곳 어디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길입니다. 둘째, 교회와의 연합-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룻의 확신에는 하나님나라에 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려는 열망은 그 나라의 의와 인과 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마23:23, 엡4:245). 셋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소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주안에 연합된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합니다(요15:5).

토 엘리야의 영감을 구하자 (왕상3:1-14) 찬177장

왕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의 본은 이 시대의 교회가 배워야 할 긴급한 일입니다. 첫째, 영감의 갑절이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13, 눅24:49). 장자가 받을 갑절의 몫인 이 은혜는 받기 어려운 귀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자에게 이 능력은 항상 약속돼있습니다(눅11:13). 둘째,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간절한 사모심을 필요로 합니다. 엘리야를 따라갈 때 숫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른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갈망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둘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받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 혼신을 다했습니다. 믿음은 회개의 바탕 위에 헌신의 자세로 시작해 신실함으로 표현됩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 갈망합시다.

종교다원주의 연구

〈7면에서 계속〉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타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신비스런 구원 활동은 모든 역사에 드러나며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교간의 대화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종교를 통해 성취하신 일을 나누며 서로가 배울 수 있는 방편으로 소개되었다. 1996년 이후로 WCC는 종교다원주의의 더욱 강력한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유일한 절대 종교라는 사실을 주장을 포기하고 타종교와의 대화에 임함으로서 인류 공동체가 회복을 소망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가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은 선교의 영역이었다. 1952년의 IMC 제5차 대회는 에큐메니칼 선교의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교회의 선교'(Missio Ekklesiae)의 종결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선교 개념은 교회가 선교를 책임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이는 서구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세계선교의 방법을 벗어나 국제관계와 인종 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수립하는 일과 직결되는 선교적 일치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 후 1998년 WCC 총회에서는 교회는 '증거와 대화'를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적 관용을 베풀 것을 주장하였다. 무엇을 말하는가? 선교가 타종교와의 대화로 전락시킨다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한 불신자 구원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기독교의 유일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과감히 포기하기를 원한다. 주의 교회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끝〉

한국교회정보센타(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요.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타(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싯돌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참회의 초대, 참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탁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 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 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 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종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치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싯돌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월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타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든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 (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타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타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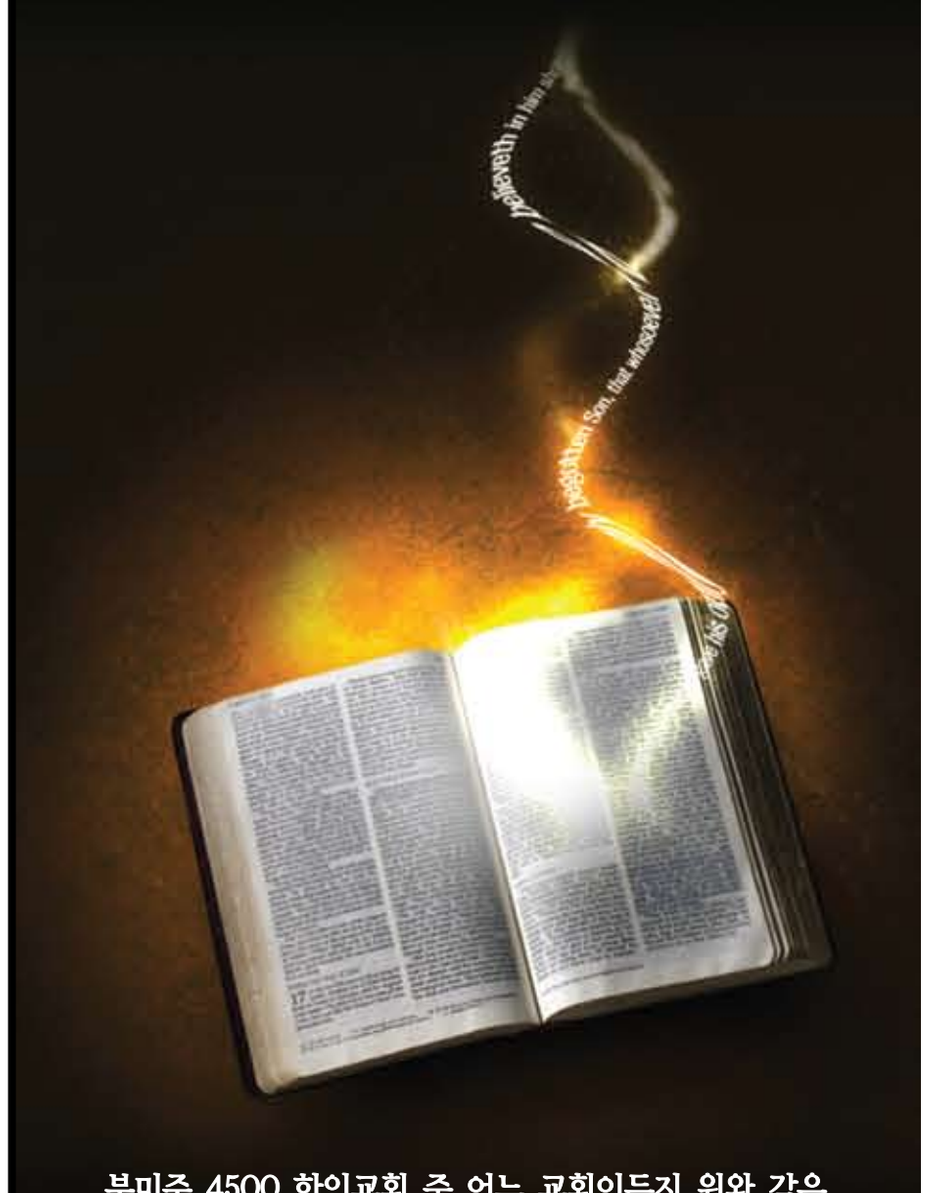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한국교회정보센타 Korea Church Data Center

홈페이지 - www.kcdc.net
이 메 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대각성기도 불길 확산을 위한

얼바인 선언문



북미주 4500 한인교회 중 어느 교회이든지 위와 같은 선언문의 취지와 확산에 동감하시는 교회들은 다음의 연락처로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 섬기며 필요한 아이디어와 자료들, 동영상들, 인쇄물 등을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각성 기도회의 불길이 온 북미땅을 덮으며 확산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북미지역 한인교회들의 대각성을 통하여 미국과 카나다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죄를 물리치고 사단을 추방하며 성령 안에 깨어나십시다.

Rise up, Korea! Wake up, America!

연락처: 대각성기도회 확산쎈터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실무간사: **김영빈 목사** (714)873-7315
박병기 목사 (949)468-6223

Email: webmaster@bkc.org
Homepage: www.bkc.org
사무실전화: 949-854-4010 (엔젤라 송 간사)

섬길수 있는 분야:

1. 대각성 기도회 시작준비와 진행 매뉴얼
2. 대각성 기도회의 순서와 찬양, 영상에 관한 재료, 책자
3. 대각성 기도회의 참가, 응답, 열매, 기적에 관한 보고내용
4. 대각성 기도회의 날자 선정, 기간선정, 이웃교회들과의 협력
5. 대각성 기도회의 follow-up과 확산연대

대각성 기도회 확산쎈터 섬김실무
송 정 명 목사 (미주 한인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손 인 식 목사 (대각성기도회 확산쎈터 대표, 베델한인교회 담임)

북미주 각도시에 산재한 한인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들은
미주 한인 기독교 총 연합회 (회장 송정명 목사) 주관으로
2011년 9월20일-21일 양일간 남가주 얼바인에서
역사적 컨퍼런스를 열고 다음과 같이
대각성 기도회 미전국 확산을 결의하게 되었다.

우리는 북미주 각 도시에 산재한 디아스포라 한인기독교 교회협의 회장들의 막중한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남가주 얼바인에 모여 2011년 8월 1일부터 40일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와 폭발적인 은혜를 청취하고 크게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매일 밤, 회개와 통회가 2천 명에 이르는 교회 성도들 및 인근 각처에서 몰려 온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났고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강림이 그 자리에 나타난 사실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죄를 토설하며 교만을 통회하는 회개의 기도 가운데 임한 성령의 불길은 1세 부모세대뿐 아니라 수백 명에 이르는 2세 영어사용 자녀들에게 나타났으며 성령의 감화 감동을 체험하도록 이끌었다. 많은 병자가 치유를 받았고 그중에는 두 명의 암환자가 완전히 치유 받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암 전문의까지 놀라게 하였다.

수많은 기도 응답이 각 가정과 개인에게 일어났으며 심령의 닫힌 문이 열려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 씻음 받는 중생의 역사도 함께 터져 나왔다. 목회자로부터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임하시는 성령의 불길은 매일 밤 타올랐으며 이처럼 강한 성령의 임재와 표적, 기사들로인해 얼바인을 중심으로 각처에서 찾아 온 방문자들까지 40일간 연 인원 8만 명 이상의 예배자들이 성령임재를 체험하며 목격하게 된 것이다. 회개와 자백의 통곡, 용서와 죄 씻음을 사모하는 부르짖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감격하는 찬양으로 온 성전이 진동하였으며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의 선포에 응답하여 죄에서 손을 떼며 악행을 버리는 갖가지 변화들로인해 두려움이 온 교회를 덮었다.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들은 이 같은 성령의 강림과 기사들을 청취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시를 깨닫고 통찰하게 되었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패륜하여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망해 가고 있으며 사단의 세력 앞에 교회들마저 그 힘을 잃어가는 최악의 위기인 것을 절감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대각성 기도운동이야말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악령의 흐름을 반전시키며 돌파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한 곳에 국한된 성령의 역사가 아닐진대 이제 각 지역의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그 죄를 사함 받고 그 땅을 고치게 하시는 주의 명령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대하7:14). 그러므로 1차적으로 얼바인에 모였던 우리는 북미주 각 도시의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미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도시마다, 교회마다 대각성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성령 안에서 회개와 통곡의 대각성 기도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2.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죄악을 토설하고 분열과 미움과 거짓에 젖은 악을 씻어내며 성결한 예배를 회복하여 십자가 신앙의 초심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한다.**

3. **오늘의 미국을 덮고 있는 모든 악행과 불순종을 쓸어내며 성화시키는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미 주류교회들과 각 소수민족의 교회들까지 회개와 통회의 대각성 기도운동을 확산할 것을 선언한다.**

4. **대각성 기도회의 성령 불길이 한국교회들에까지 확산되어 부패와 타락을 벗어버리고 회개와 기도운동으로 전환하여,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민족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북한의 고통 받는 동족들까지 해방하고 구원하는 대각성 기도운동이 될 것을 선언한다.**

2011년 10월

북미주 한인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 일동

인/터/뷰 김성천 목사(여수제일교회 담임)

"건강한 교회로 패러다임전환 일어나고 있다"

목회자들, 신학에 대한 통전적 안목 갖고 목회현장에서 꽃피워야

초대교회 회복...부활메시지·사랑나눔공동체·평신도운동 추구

부흥회(퀸즈장로교회)인도 차 뉴욕을 방문한 김성천 목사는 100년 된 여수제일교회 담임으로 3대 째 교역자의 집안에서 성장한 목사다. 외조부 문재구 목사, 부친 김홍래 목사 이외에 외가 쪽으로 교계 지도자들이 많다.

어릴 때 아버님의 성공적 목회현장을 보면서 목회자로서의 자존감이 형성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총신대에 입학하고는 부친의 목회에 굴곡을 접하면서 목회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자퇴를 하고 방송대학을 다니면서 세상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신앙적 면에서는 위기였으나 방황 2년의 기간은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고 김 목사의 목회에 많은 도움을 준 셈이 됐다.

김 목사는 어린나이에 목사도 되고 교수를 하다 보니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 돼 가르치면서 신학이 형성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노원교회 담임으로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관념적인 신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직 믿을 곳은 하나님 뿐. 목회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김성천 목사

1983년 목사안수를 받고 85년 한사랑교회, 90년 상명교회를 거쳐 2002년 여수제일교회에 부임했으며 현재 총신대원과 광신대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김정길 사모와의 사이에 3녀가 있다. 다음은 김성천 목사와의 일문일답.

-여수제일교회와 여수 지역을 소개하신다면?

본 교회는 100년 된 교회로 현재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본다. 재적 3천명, 출석 2200명으로 노인이 많다. 성전건축을 위해 도시 중심에 산업지를 샀는데 행정소송이 걸려있지만 잘 해결될 줄 믿는다. 커뮤니티에 주차장을 오픈하고 1층은 상업용도로 대여하고 2층에 복지시설 공간, 3층부터 교회가 사용하게 된다. 7, 8층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문화 체육 공간으로 설계돼 일반시민들의 호응이 좋다.

여수는 내년에 '세계해양엑스포'가 열리는 30만 중소도시다. 이 축제에 내외외국인 1천만 명이 방문하게 된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초대선교사 이기풍, 윤형숙 전도사(본 교회출신의 유관순, 6.25때 순교) 등을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엑스포는 교회 뿐 아니라 여수지역의 축복으로 (여순반란사건의) 가슴앓이를 치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 활성화, 도로시설 향상 등이 이뤄지게 되고 영적으로는 순교신앙의 유산을 방문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이다. 현재 2012세계박람회 여수기독교총연상임회장과 여수시 교회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목회와 교수직을 병행하고 계신데 목회철학을 말씀해주신다면?

목회와 신학을 동시에 시작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처럼 목회를 할수록 목회와 신학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실용주의로 흘러서 교회 수적성장에만 집중하게 된다. 강단의 포퓰리즘이나 엔터테인먼트, 긍정의 힘 심리학 등에 치우치지 않는 연속 성경강해설교를 하고 있다.

목회철학은 전체적으로는 신학이 있는 목회를 하려고 한다. 한국교회에 개혁주의적 신학이 정착됐는지, 발전이 됐는지가 문제다. 127년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 교육을 100년이라고 한다면 초기에는 근본주의적 신학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을 물리치는데 극약처방을 하기도 했다. 그것이 이원론인 성속분리다.

7, 80년대 이후 부상(浮上)한 홍정길, 옥한흠 목사 등의 복음주의 신앙이 사회적인 기여는 많이 했지만 (칼빈)개혁주의는 아니다. 근본주의의 뿌리인 청교도 신학의 장점은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 영역에 펼치는 것이다. 초기에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대단한 전도의 원동력이 됐다. 폭발적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기도운동이나 십일조 신앙이 개인 경건에 그치고 기복신앙이 들어왔다. 복음주의 운동으로 인해 결국 개혁주의가 되지 못한 셈이다. 이제 21세기 기독교역사의 대과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 사사시대와 같은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야 한다. 즉 사도행전의 원색적인 교회로 돌아가서 부활의 메시지, 사랑과 나눔의 교회공동체, 평신도 운동의 삼박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테크닉만이 아니라 신학이 있는 목회를 가르친다.

-한국 교회 미래를 전망하신다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희망적이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8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교회성장은 중지됐고 90년대 중반부터는 마이너스라고 본다. 정상에 오르고 나면 내리막길이 있게 된다. 18세기 유럽이 산업혁명 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듯이 세계 교회사를 보면 삶의 질이 높아지면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물론 미국교회는 좀 다르지만.

경제성장의 언덕에 포퓰리즘이 나타나게 된다. 세계 10위권 국가 중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나라들이 많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문화나 지식의 통로가 됐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셈이다. 그저 양적인 교회성장만 모색하는 신학 없는 지도자들이 나타났었다.

현재 한국교회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다고 보고 더 이상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 한국교회 폭증 이유 중 하나는 무인가 신학교 남발로 인한 목회자 양산이었는데 출산율 감소로 일반대학이나 신학교 모두 자동정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한국교회가 새로워 질수 있는 기회로 보고 후진들이 건강한 교회를 향한 세미나나 연장교육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아쉬운 것은 목회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에 대한 통전적 안목을 가지고 실천목회에서 꽃이 펴야하는데 공부들을 잘 안하는 것 같다(웃음).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선교사 2만명 시대에 도래했다는 점이 인구비율로 미국을 능가한다. 제3의 물결, 아태시대, 동서의 평균화... 중국은 이미 기독교인구가 한국을 앞섰다. 세계선교계는 중국과 인도가 한국선교를 제친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미 한국은 복음의 네트워킹이 구축돼 있고 기독교 문화의 DNA가 준비돼 있다고 본다. 즉 세속화가 기독교를 망치기도 하지만 한류 열풍을 잘 이용하면 복음의 역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외 이민교회에 거는 기대가 있으시다면?

2, 30년 전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전통적 신앙과 열정을 갖고 있는 이민교회에서 자라난 1.5세 2세들에게 기대를 건다.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DNA를 가진 2세 디아스포라들이 본국 교회보다 더 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유원정 기자〉

'아랍의 봄' 되레 '반크리스천' 분위기 심화!

〈1면에서 계속〉

일단 거친 산야를 한순간에 불사를 기세로 아랍권에 10개월 이상 이어진 민주화 요구는 지금까지 3명의 독재자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다. 또 나머지도 권력 이양을 약속하는 등 생명유지에 급급한 상황이 됐다.

튀니지의 지네 엘 아비딘 벤 알리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했다. 또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사임, 30년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어 지난 8월 23일 무아마르 알-카다피 국가원수가 수도인 트리폴리를 탈출, 자신의 고향인 시르테에 숨어 반정부세력에 저항하다 이날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수단의 오마르 알-바쉬르 대통령은 2015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 이라크의 누리 알-말리키 총리도 2014년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왕정도 시민들의 민주화와 경제 불평등 개선 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예멘의 알리 압룰라 살레 대통령은 4월 26일, 30일내 권좌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에 불복, 반정부세력과 충돌을 계속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현대화를 이끌고 있는 이 `아랍의 봄` 혁명은 경제적 불평등, 독재 권력의 부패, 인권탄압 등 시민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원인과 배경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여기에다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젊은이들이 독재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뚫고 시민들을 시위현장이 이끌어낸 것도 큰 동력이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지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 독재 권력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고 인권 탄압 상황을 개선한다는 '아랍의 봄'은 오히려 중동권 크리스천들에게는 또 다른 박해와 압제의 연장이다.

뉴트 깅그리치 후보는 아랍권 풀뿌리 운동 차원에서 발화된 '아랍의 봄'이 바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관여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천들을 증오하고 박해하는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11년 보고서는, 깅그리치 후보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즉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국 운영을 맡게 된 과도 정부는 오히려 콥틱 크리스천들에 대한 무슬림 종파의 폭력을 용인하고 있고 종교적 소수세력인 크리스천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고 이집트 상황을 보고한다.

여기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스' 역시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사망했어도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노출을 꺼려할 정도로 반 크리스천 정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들어선 과도 정부이건 새 정권이건 사리야 법에 근거한 이슬람 정권이기에 이들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은 과거에 받았던 동일한 대우와 수난을 겪고 있다.

깅그리치 후보는 이라크의 상황마저도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고 오픈도어스의 자료를 인용한다. 즉 1991년에는 거의 백만 명에 달했던 크리스천들이 2011년 현재 34만5천명으로 10년 만에 거의 70%나 그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1년 올해만 해도 이라크 내 교회들은 1월, 7월과 8월에 수많은 폭탄테러들로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깅그리치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공화당 예비주자들 중 처음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며 신장시켜나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공연하게 천명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반드시 이집트나 이라크를 포함한 지구촌 전역에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만드는 리더이다."

결론으로, 공화당 예비주자들 중 깅그리치 후보는 지난 2008년 대선의 실수, 즉 보수주의자가 보수주의자이지 못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인상을 주지 못했던 매케인 후보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번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월, 이미 그는 미국 내에서도 종교적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진보적 판사들"의 퇴진을 위한 전투를 벌이겠다고 약속할 정도이다.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암초, 불량율-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 나성 북부 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휄로쉽 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달라스 한인 장로 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문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몬트레이 베델한인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델 한인교회, 베버리 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샌디에고 아름다운교회, 성림한인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시온연합감리교회, 아버지마음교회, 아름다운교회, 얼바인 침례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예삶교회, 은혜평강교회, 은혜한인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이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필라한디옥교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하버 성산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AT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MnC, ITMC, PGM, ENJOY&TV, HKM, SILK WAVE MISSION, ThatsMEonTV.com, KBS,MBC 등 항상 성원해주신 많은 교회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치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율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율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율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마진 없는 홀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료배달: 남가주 전역($45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타주 주문시 면세)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집회/부흥회/행사/시리즈 설교 등을 원본만 보내 주시면 편집, 제작, 복제, 표지 디자인에서 팩케징까지 헐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제작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설교, 찬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량에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단가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요망)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셔서 매월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백 만능 해결사-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봉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안성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시 40-45장/hr,
- 효율적 개별 잉크 절약기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il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쉽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서플라이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경쟁기종 중 가장 빠른속도,
가장 낮은 에러율 및 고장율의
ILY Enterprise사 제품
- 캘리포니아 현지생산
- 확실한 품질보증
- 신속한 A/S 및 최상의 조건

설교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CA 92705
LA 1961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